

社說

학원폭력근절대책 치졸한 발상 현정권은 명백한 학원탄압증거

오늘날 우리사회의 대학이 안고 있는 고민은 현실의 모습으로 부터 출발한다. 학원의 자주·민중가 사회의 그것과 불기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한 이래 대학은 상이상의 하루로써 민족과 민중의 애국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변혁의 관점에서 왔다. 이러한 대학의 실천성은 한때는 정통성을 가져온 적 없는 이념의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최대의 장악선이 되어 왔으며 그후에 그들의 소위 문교정권이라는 것이 학원에 대한 탄압과 공격으로 일관되어 온 것이다.

지난달 25일 정부·여당의 당정 협의에서 밝힌 「학원폭력근절대책」이라는 것도 실은 이러한 학원탄압의 연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학이 공권력 영향권밖의 자립적 영역으로 운동권학생의 활동거점, 일반학생의 의식교육의 장, 수혜자로서의 불평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정권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의 논리는 대학을 상습적으로 고집적인 범죄의 소굴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권력에 의한 학원탄압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민중」과 「재단혁신」은 결국 하나 인맥·파벌 배제한 체질개선 이뤄야

지금 대학에는 크게 나뉘어 2가지의 문제가 놓여 있다. 바로 「재단혁신」과 「민주총장선출」이 그것이다.

첫번째로 「재단혁신」 문제를 시급히 제기하게 된 '83.11 임시부총장회의」의 발발이 갖는 의미는 현 재단의 부흥이나 부패와 패권적 지배로 불 수 밖에 없다. 이는 재단이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패권적 자기 전방위 정립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좀더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면 재단의 모순은 중단으로 직결된다. 조계종의 유일한 총림대행인 본교에 대한 위상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한 문제이며 자체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한 한계이다. 또한 한걸음 나아가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는 문교부 즉 정부가 지속적으로 총장선출을 강요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감사관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보듯이 최대의 「역할」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권한」마저 통제하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단혁신」과 함께 「자기 총장」의 민주적 선출은 동국발전의 일대 혁신의 작업이어야 한다. 인맥·파벌 얽혀진 대학이라는 오명을 씻고 체질개선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자주권 수호의 측면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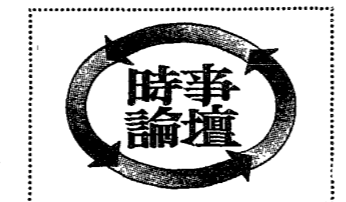
운영하는 한편 매일 3회씩 위협을 수거한다는 발상은 대학을 형식적으로 그들의 감시체제속에 묶어둠으로써 고립화시키는 동시에 학원내에 불신풍조를 만연시켜 궁극적으로 무력화한다는 그들의 구도를 세심하게 확인하게 한다. 특히 「건전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진출, 학내투쟁을 장악케 해」 학생회비와 등록금을 분리정수하여 학생회비 납부부부는 학생으로 판단토록 하며, 학내 언론을 이원화하여 학교와 학생을 분리한다는 대목에서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교수와 학생, 학생상호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여 「분리수익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속셈으로 학원안정회의 5공화국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너무나 광명연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한편 측은하기까지 한 자들의 치졸함과 무모함을 보며 다시금 대학은 정의와 진리의 장이며, 그것은 인간해방을 위한 사회변혁에 기여할 때에만 의미를 갖게됨을 밝혀준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학원자주의 의미를 잃지 못하는 자들의 「학원대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학원주의의 합성을 더욱 높여주고 결국은 스스로의 요멸을 파는 것이라는 것도 함께 일러두는 바이다.

호의 측면이 때문이다. 현재 전체교수회는 대의원회의 대표권을 부여, 제도안을 마련토록 하여 지난 30일 오전 10시에 규정위원회를 열고 「총장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날 오후 4시 대의원회의에서는 결정을 짓지 못했다. 이유인즉 그간 총학, 조교와 가졌던 갈등의 내용이 수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는 측과 원안인 「입후보제」에 의한 선출방식 자체를 고수하는 측과의 의견 대립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논의의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선거시기가 촉박하고 「방학」이라는 대학의 휴지기로 날짜기 무리이다. 학원과 직면대표에게 주어지는 의견개진의 기회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축소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이는 교수회의 독자적 선출 이상일 수 없다. 단대선거, 체제중의 행사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총학생회와 대표성 획득·대중성 확보에 미진함을 보이고 있는 공동대표의 사업이 상충주의의 활동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변신과 자기해방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원공통체로서의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변혁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때 「재단혁신」 「민주총장선출」을 비롯한 「학원자주」의 새장을 펼쳐야 할 수 있다 하겠다.

오늘날 대학은 그동안 보편화되어 왔던 국가권력의 지시나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대학본연의 위상을 회복하여 진정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구가하고자 하는 반성의 진보를 겪고있다. 여러 집권의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각주체들의 노력은 열렬한 것이다. 지난날 반사회적·반역사적 권력집단에 의해 초래된 한국의 정치상황에 의해 대학인들은 권력집단의지나 권력추종의 기회주의적 속성, 그리고 도덕적 파탄과 패배주의적 자기도취에 맴돌며 예속적 학원연속나 제한적인 지적자유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학의 각주체들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절연된 개혁의지로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를 실현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역사의 시계 바늘을 역으로 회전시킬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인들 가운데는 도대나 호를의 사회변혁적 기운을 부정하고, 권위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에 대학의 사명과 지성을 포기하여 일관된 부조리한 특혜에 연연하여 불특정 대학권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세력이 버티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퇴행적 보수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총장의 위상은 실로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격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총장이라는 한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대학이 당면해 있는 모든 현안이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학이 제자리잡기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선 총장이라는 자질을 가지는 자가 어떠한 능력과 사명감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대학개혁과 발전의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프락치 여부와 관련된 설인종근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정부와 관계 언론은 이 사건을 통해 학생운동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헬인되어있고 급기야는 학원내의 폭력을 근절한다는 미명하에 학내청원경찰의 신설이나 학생회의 가입제 등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설인종의 죽음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이 사건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락치를 중시하는 한 학원사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사학의 주요 형태인 학원프락치는 베지시 유형이 있다. 첫째는 정보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핵심조직에 침투하는 경우이다. 둘째 유형은, 운동 등을 열심히 하던 사람에게 가정문제 등 지형적인 약점을 잡아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며 프락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운동생이 사학 사건과 연루되어 프락치 활동과 구속 등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네번째는 생계 곤란이나 사회적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 수단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포섭하는 경우이다. 지난 8월 29일 양심 선언을 한 국민대 김정환교수는 보안사로 부터 국민대 전 교직원집합의 은신처를 대리고 추방당하여 생애장교 문을

투철한 개혁의지 지닌 총장이여야

무엇보다도 지난 날에 누려왔던 대내·외적 권력의 위임자로서 대학의 전반적 정책과 학사관리에 전횡을 행사하던 관행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행정당국의 지지를 성실히 이행하던 시너적 태도나 대단이나 소수집단의 이해관계에 연루된 하수인적 태도에서 탈피하여 대학구성원의 총체적 이익을 대변하여 대학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관을 확고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崔淳烈 (사범대교수·문학교과)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해 근자에 발표된 몇몇 대학관계인사들의 견해를 보면, 대체적으로 내세우는 기준으로 보면, 고매한 인품과 뛰어난 학식을 소유한 학자로서 대학행정을 경험한 전문경영인의 능력과 구비한 자라는 답이 나와 있다.

여기서 먼저 문제되는 것이 학자적 자질이나 경영능력 능력이나 학의 중간관리 기구에 참여하는 길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난날의 대학사를 살피면, 과연 인품과 학식은 어떻게 조성되고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대학행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정치적 신념과 학문적 신념은 어떠한 것인지 이상 아니다. 대학교육은 고도의 지식산업화 사회와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그러하여 대학행정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를 따라야 대학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를 수용·조정하는 일과 대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설의업무도 상당하므로

이런 점을 두루 관장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증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학의 절대적 요소로 역시 학문을 우선으로 하는 바, 학자적 자질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학자로서 행정적 감각을 채득하는 과정은 언필칭 소위 보직이라는 데

로 할 때 엄격히 조처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학식과 덕망의 기준은 종래의 관행 위주의 어용적 태도와 지식인의 사명식을 외면한 채 안일한 전공영역에 몰두한 무기력한 방관과, 또 무가치한 대사회적 평판 내지 지명도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문공통체적 임정임을 상기하건대, 그 학식은 공소한 이른의 지적조작이 아닌 실천적 학문의 성과이어야 하며 덕망이란 것도 구체적인 삶의 대응양식에서 획득된 도덕성의 함양이어야 할 것이다. 그에 아인이 어떠한 부담없이 새로운 학문적 방향성과 도덕적 인격을 토대로한 대학의 미래상을 창출해 나가는 강건한 용기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장된 정론과 오열된 강연으로는 새를 태우고 가는 형의 민주화·자주화를 허심탄회하게 선도해나가는 역부족임이 자명하다. 한편, 과대포장

재단이나 소수집단 예측서 탈피를 순교자적 정직·진취적 용기 요구돼

는 점이다. 대학이 무엇보다도 학문집단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학자적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분열된 산업사회의 구조 속에서 인물이나 학식이 곧바로 행정적 관리력이나 대외적 영향력으로 인정되는 시대는 이상 아니다. 대학교육은 고도의 지식산업화 사회와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그러하여 대학행정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를 따라야 대학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를 수용·조정하는 일과 대외적으로 처리해야 할 설의업무도 상당하므로

원 양심과 구호성의 민주·개혁의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의 분별도 냉정히 해야 하리라 본다. 국학이세와 자기합리화의 비겁도 물리칠 일이지 학문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선명성의 위선도 경계할 일이다.

일단, 바람직한 총장상의 수평적 담을 제시해보자면, 도덕성과 실천적 용기를 구비한 학자로서 대학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갈등을 책임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관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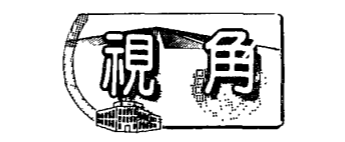
재단이나 소수집단 예측서 탈피를 순교자적 정직·진취적 용기 요구돼

재단이나 소수집단 예측서 탈피를 순교자적 정직·진취적 용기 요구돼

학원탄압 제기될수 없어 프락치 폭력사건과 관련해서

당하는등 학원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설인종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정부와 관계 언론은 이 사건을 통해 학생운동의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헬인되어있고 급기야는 학원내의 폭력을 근절한다는 미명하에 학내청원경찰의 신설이나 학생회의 가입제 등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설인종의 죽음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이 사건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락치를 중시하는 한 학원사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사학의 주요 형태인 학원프락치는 베지시 유형이 있다. 첫째는 정보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핵심조직에 침투하는 경우이다. 둘째 유형은, 운동 등을 열심히 하던 사람에게 가정문제 등 지형적인 약점을 잡아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며 프락치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운동생이 사학 사건과 연루되어 프락치 활동과 구속 등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경우이다. 네번째는 생계 곤란이나 사회적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생계 수단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포섭하는 경우이다. 지난 8월 29일 양심 선언을 한 국민대 김정환교수는 보안사로 부터 국민대 전 교직원집합의 은신처를 대리고 추방당하여 생애장교 문을

했던 전 부총장 겸 선전국장 김태수는 그 활동 기간이 4년이나 되고 대공 간부였다는 점이 먼저 충격을 준다. 부총장은 계속적인 기밀누출과 대중 간부에 관한 임정업무에 철저히 조사한 결과 김태수가 프락치의 장본인이며 그 역할이 대중조직의 동태파악과 비합법조직의 파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태수를 불러 20여명의 학우들이 보는 가운데 청문회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자백한 김태수는 양심 선언을 하게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력에 의한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설인종의 우발적인 죽음을 전제프락치사건에 강제로 점목시키고 그럼으로써 학원을 폭력 세력으로도 매도하고 있다.



적 폭력앞에서 똑같은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관계 언론은 설인종의 죽음을 부각 시켜서 이죽음을 학원 탄압의 빌미로 악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학생운동을 폭력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폭력은 무엇인가. 최근 최민대의 프락치 사건인 부총장 겸 프락치 사건을 보자. 프락치라 자백

에 빠져서 해놓고 교과서에서 판계 언론을 통해서 땀땀하다고 제멋대로 그 폭력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적만하장도 유분수지 개인의 양심까지 팔아먹길 강요하면서 학원의 침탈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5공 시절의 녹화 사업이라는 것이 친구를 팔고 민주를 팔고 6명의 죽음까지 강요하여 5공의 그 파쇼적 본질을 드러냈듯이 현 학원 사

한강희 (사회대 정치외교학과)

東國漫評



(1면에서 이어짐)

2. 응시자격

가. 199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지원방법

가. 본 대학교 내 복수지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며 복수지원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 동일계열에 한하여 제2, 3지망까지 허용한다. 단, (1) 선학과를 제2, 3지망으로 지망할 수 없다. (2) 한의예과 지원자는 의예과, 외예과 지원자는 한의예과에 한하여 제2지망까지 허용한다. 이러한 한걸음 상에서 감사관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보듯이 최대의 「역할」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권한」마저 통제하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단혁신」과 함께 「자기 총장」의 민주적 선출은 동국발전의 일대 혁신의 작업이어야 한다. 인맥·파벌 얽혀진 대학이라는 오명을 씻고 체질개선을 실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자주권 수호의 측면이 때문이다.

4. 전형방법

계열	합격고사	내신	실기고사	합계
인문·자연	340점(70%)	145.7점(30%)	-	485.7점(100%)
예·체능	340점(30%)	340점(30%)	453.3점(40%)	1,133.3점(100%)

* 과목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선택과목은 실업 및 제2외국어 과목 중 택 1한다.

5. 전형일정

가. 전기전형
(1) 입학원서 교부: 1989. 11. 17(금) - 11. 24(금)
(2) 입학원서 접수: 1989. 11. 21(화) - 11. 24(금) 오후 5시까지
(가)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입학원서를 교부함.

(나) 우편접수는 '89. 11. 24(금)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입학원서에 한함.

(3)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서울캠퍼스: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무과
(나) 경주캠퍼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무과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나) 작차인명부 해당페이지 사본 1부(학교장 직인 및 원본대조필 필요)
(다) 사진 2매(3cm×4cm)(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원서부착용)
(라) 사범계학과 지망자(제2, 3지망 포함)는 학교장 추천서 1부(입학원서 후면 소정양식,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출신학교장 추천서 1부)
(마) 선학과 지망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의 추천서 1부
(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입학원서 접수시 검정고시 합격증 및 체력검표서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되 체력검표서 원본은 접수시,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은 예비소집시 되돌려 받는다. (입학원서에 시·도 교육위원회 검정고시 위원회 위원장의 합격사실확인 생략)

(5) 전형료

(가) 일반계: 25,000원
(나) 예·체능계: 30,000원(실기고사료 5,000원 포함)
(다) 입학원서 및 요강대: 1,000원

(6) 대학입학 학력고사

1989. 12. 15(금) 08:40 - 17:10(서울·경주 캠퍼스 동일)
나. 후기전형
(1) 입학원서 교부: 1989. 12. 29(금) - 1990. 1. 6(토)
(2) 입학원서 접수: 1990. 1. 3(수) - 1. 6(토) 오후 5시까지

(가) 토요일·공휴일도 평일과 같이 입학원서를 교부함.

(나) 우편접수는 '90. 1. 6(토) 오후 5시까지 도착한 입학원서에 한함.

(3) 대학입학 학력고사

1990. 1. 22(월) 08:40 - 17:10(서울·경주 캠퍼스 동일)

* 원서 교부 장소

가. 서울지역: 교보문고, 종로서적, 동화서적(강남), 세종문고(롯데월드), 한가람문고(고속버스터미널)
나. 지방: 국민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각지점

은행명	해당지역
국민은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경주, 제주, 강릉, 수원, 인천
상업은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청주, 마산, 속초
조흥은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경주, 제주, 마산, 강릉
한일은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제주, 전주, 포항

* 상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교무과, 또는 경주 캠퍼스 교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 주소: 100-715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전화: 직통 (02) 272-8723
● 교환 (02) 267-8131~9
● 267-8141~5
야간 (02) 267-8145

경주캠퍼스
● 주소: 780-714
●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번지
● 전화: 직통 (0561) 43-1030
● 교환 (0561) 2-0131~6
43-1011~20
야간 (0561) 43-1020

신입생 전·후기 분할모집



교무처장 퇴진 및 동국발전 위한 직면노조 전진대회,가 지난26일 오후2시 조합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앞에서 갖고 교무처장의 퇴진을 강력요구했다. (관원7사 11면)

법학·의예과 등 30개과 적용 3년만에 모집비율 6대 4 선발

오는 9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과 관련, 본교에서는 전·후기로 분할모집하기 위해 서울·경주캠퍼스 총30개학과를 내경,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87년 야간학과 일부에 적용 시리시한 바 있으며 문교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오는 90학년도부터 적용 시행될 전·후기 모집비율은 각각 6대4로 나눠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내경된 30개학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불교대학-불교학과 △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과대학-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법과대학-법학과,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정보관리학과 △공과대학-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건축공학과, 산업공학과 △사범대학-법학과 △상경대학-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의예과.

"학교운영새신·자세 전환 촉구"

경주 교수회 '최근 학내외 사태에 대한 입장' 발표
"이미지 쇄신위한 제도적 지원안 강구하라"

경주캠퍼스 교수회(회장=裴相賢·한문학)는 지난26일 '최근 학내외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경주 교수 집단의 이름으로 '지난 임시부경사건은 동국역사상 유례없는 학내외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문교당국으로부터 증과, 증원의 금치라는 불행한 조치마저 당하게 되었다고 견제할 후 당면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운영의 전면적 쇄신과 동국학원 전 구성원의 획기적 자세전환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결의 내용은 '첫째 학교당국은 문교당국으로부터 본교에 취해진 제반 불리한 조치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즉각 모색할 것', '둘째 제단이사회는 발전적인 학교운영과 회계적 자제전환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첫째, 고질적 약성질한 제 결의안의 내용을 의논하게 되는데 상당수정은 본관(2중 후생복지과)에서 받고 있다.

상경대 한마당
"상경대전교 민중승리 한마당"이 상경대학생회(회장=장기철·경제3)추주로 지난31일 오전9시 본관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체3부로 나눠 열렸는데 1부에는 "상경인 즉구 한마당", 2부에는 고교권(경영3)군의 사회로 "경주포항 시민 학생 민주유년 한마당", 3부에는 백기완씨 초청 강연회가 "우리는 왜 신당결성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무로 건강상담 실시
8일, 한방병원 협찬으로

본교 한방병원 협찬 "무로 건강상담"을 오는 8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포함)을 대상으로 후생복지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동국한방병원 원장 이영환을 초청, 실시하게 될 이번 상담에서는 질병등 건강관련에 관

한 사항, 고질적 약성질한 제 결의안의 내용을 의논하게 되는데 상당수정은 본관(2중 후생복지과)에서 받고 있다.

상경대 한마당
"상경대전교 민중승리 한마당"이 상경대학생회(회장=장기철·경제3)추주로 지난31일 오전9시 본관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체3부로 나눠 열렸는데 1부에는 "상경인 즉구 한마당", 2부에는 고교권(경영3)군의 사회로 "경주포항 시민 학생 민주유년 한마당", 3부에는 백기완씨 초청 강연회가 "우리는 왜 신당결성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자주의 깃발 힘차게 휘날리자" 백상대전 오늘 정오 '통일진군 마라톤 대회'

서울캠퍼스 백상민체제전 "자주의 깃발 힘차게 휘날리자" 동국사랑·나라사랑의 한길로,란 기치아래 지난31일과 오늘(1일) 양일간 체육, 문화, 학술 행사 등이 예정되었으나 개막식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첫째날인 지난31일 오후1시 개막식 및 전교조 대학위원회 오세철(연세대학교)위원장 초청강연이 중앙당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한 장소변경 및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무산되었다.

이날 공식 첫 행사는 오후3시 중앙당에서의 '87-89로 전진하는 노동자' 영화 상영이었다. 이어 오후5시 "함께하는 노래 한마당"이 열렸다.

둘째날인 오늘(1일)정오12시 통일진군 1만동아 마라톤 대회가 5백여명의 참가로 대운동장

전산 중앙정보망화

서울캠퍼스 "교무정보 시스템 가동식"이 지난26일 오후1시 李智冠총장, 李昌培대학원장, 宋在善학부처장등 관계인 사 및 교수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1층 학과)에서 열렸다.

이에따라 서울캠퍼스는 전산 중앙정보망화가 실시되며 각종 행정업무가 각 학과에서 교무부를 거쳐 전산원 중앙컴퓨터에 입력, 사용자의 확인과정까지 3~4일씩 걸리던 기존의 배치처리가 단 10~20분만에 최종확인과정까지 가능, 신속, 정확성을 갖게 된다.

이날 李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한 전산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행정의 신속, 정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존보다 업무가 많아지게 된 전산계산원은 현재 10명의 직원으로는 학생실습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대해 金康泰전산계산소 개발주임은 "학교측과 협의해 갖고 컴퓨터확충과 담당직원 보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동정

▲金善根(인도철학)=오는 12월25일부터 90년 1월10일까지의 학술조사 및 불적당사를 위해 인도로 출국예정.

▲金基浩(인문학)=오는 12월2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 참석예정.

노조 항의로 金교무처장 사퇴

신임처장에 金泰弘교수

학교 당국은 직면노조의 항의로 지난 27일 오후 2시 金교무처장을 사퇴시키고 신임교무처장에 金泰弘교수를 임명했다.

교무처장 사퇴
노조 항의로 金교무처장 사퇴

신임처장에 金泰弘교수

학교 당국은 직면노조의 항의로 지난 27일 오후 2시 金교무처장을 사퇴시키고 신임교무처장에 金泰弘교수를 임명했다.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 7일 불교대 필두 8개 단대 각 후보자 등록 마쳐

서울캠퍼스 전11개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오는7일의 불교대를 필두로 실시된다.

오는 7일 가맹단 투표표지 투표를 끝내는 학생회장임 후보자 등록을 지난 26일 마감, 정·부학생회장에 투진(전학3)·유한수(불교2)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이런 선거는 지난18일 선관위를 구성, 선거유세는 오는 7일 본관에서 열리고 투표는 오는 8일 치루게 된다.

본과대 학생회장 임후보자는 등록을 지난 26일 마감, 정·부학생회장에 기호1번 김경원(사학3)·임명현(철학3)조, 기호2번 장정원(영문3)·차재홍(사학3)조가 각각 입후보했다.

지난 16일 선관위가 구성된 이번 선거의 1·2차 유세는 오는 2일과 7일 명진관에서 실시

귀족의식

서울에 거주하는 어느대학 교수가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교통이 혼잡한 시내를 다니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자동차의 운전사들과 '암묵적인 경쟁을 벌리게 된다. 특히 택시 운전사들은 무단정차 따위를 꺼터들기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행해도 불구하고, 그 교수가 자신의 차를 바 꾸려고 할 경우, 그들로부터 순순히 양보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교수의 대우를 대우하는 택시 운전사들을 바 꾸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 교수의 운전사들은 무언가 미워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한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이 그들의 경쟁상대로 전락

은 일종의 '貴族意識'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반복운동을 하듯이, 자신도 나름대로 살아 남기 위해서 사회생활속에서 갖가지 반칙을 범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知識을 내세워 無識을 蔑視하는 것은 귀족의 知識, 權力的 貴族의식, 財力的 貴族의식, 宗教的 貴族의식, 藝術的 貴族의식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종류의 貴族의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貴族의식의 늪에 빠져 處境惡劣을 부리고 있지나 않은지 곰곰이 반성해 볼 일이다.

본사 辭 令

任 修習記者 서울 캠퍼스

▲南宮銀(문과대 영문1)

▲鄭明植(경상대 무역1)

▲林靜廷(사범대 국교1)

▲金榮國(사범대 수교1) 경주 캠퍼스

▲車玉景(인문대 교미사1)

▲李文熙(상경대 경영1)

(以上 10월30일)

依願免職 藝術·文化2部 次長

▲吳成德(인문대 영문2)

(9월30일)

동국대학교 장학제도 안내

1990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장학명	지급 조건	장학 금액	인원
명진특별 장학	학력고사 310점 이상	• 입학금·등록금면제, 월30만원지급(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00점 이상	• 입학금·등록금면제, 월20만원지급(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명진장학	학력고사 295점부터 299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1등급으로 학력고사 29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등록금전액(입학금 포함)	50
학림장학	학력고사 285점부터 29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8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수업료 전액	100
혜화장학	학력고사 275점부터 28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7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수업료·기성회비 반액	100
동국장학	학력고사 270점부터 274점 이내자	대학 4년간 수업료 반액	200
일민장학	본교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300

장학명	지급 조건	장학 금액	인원
명진특별 장학	학력고사 310점 이상	• 입학금·등록금면제, 월30만원지급(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학력고사 300점 이상	• 입학금·등록금면제, 월20만원지급(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명진장학	학력고사 295점부터 299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1등급으로 학력고사 29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등록금전액(입학금 포함)	50
학림장학	학력고사 275점부터 29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7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수업료 전액	50
혜화장학	학력고사 265점부터 27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6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수업료·기성회비 반액	100
동국장학	학력고사 250점부터 264점 이내자	대학 4년간 수업료 반액	100
일민장학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200

장학명	지급 조건	장학 금액	인원
명진특별 장학	학력고사 310점 이상	• 입학금·등록금면제, 월30만원지급(도서구입비 및 학비보조)	
명진장학	학력고사 295점부터 299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1등급으로 학력고사 29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등록금전액(입학금 포함)	50
학림장학	학력고사 275점부터 29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2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7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수업료 전액	50
혜화장학	학력고사 265점부터 274점 이내자 또는 고교내신성적 3등급 이상으로 학력고사 260점 이상자	대학 4년간 수업료·기성회비 반액	100
동국장학	학력고사 250점부터 264점 이내자	대학 4년간 수업료 반액	100
일민장학	본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200

*1. 경주캠퍼스 한의예과 및 의예과는 명진장학 이상에만 해당됨.
 *2. 4년 계속 지급하되 학기말성적이 B+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
 *3. 장학금 지급 대상은 본교 입학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인원이 계획인원을 초과할시에는 석차순에 의해.
 *4. 명진특별장학으로 선발된자는 본교대학원 진학시 등록금 전액지원 및 해외 자재교 유학 추천의 특전을 부여함.

학원자주

학원공공체제를 실현하며

(좌담)

▲사회=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좌담은 동대신문사에서 5차례에 걸쳐 기획연재했던 「학원자주-학원공공체제를 지향하며」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시리즈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학원공공체제를 모색하는 의미에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국대학의 모순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강정구=많은 학생이나 국민들은 해방이후 45년이 지난 이바탕에서 일제식민지잔재라는 이야기를 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오인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학사회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로 일제식민지시대의 리더였던 이선근前총장의 행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총장이 됐을 때 대외관계, 대내행정, 선결과 학생간의 관계, 교수와 총장간의

◇...지난해 부터 본교를 비롯한 조선대·세종대등에서 불발기 시작한 학원자주화투쟁이 올해들어 새로운 고비를 맞고있다.
본면에서는 우리대학총장의 구속, 민주적총장선거제도 마련을 앞두고 각 성원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교과과정의 개편등 일련의 사건을 한국대학의 모순구조에 대한 과학적 인식속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학원공공체제를 모색하려는 의미에서 「학원자주-학원공공체제를 지향하며」라는 기획시리즈를 5차례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좌담은 시리즈를 마쳐며 그간의 필진이 모여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충·정리하는 의미에서 준비 되었다.
(편집자주)

교수·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 관건'

참석자

강정구

(사회대교수·역사사회학)

최창술

(불교대교수·불교철학)

이만근

(대학원철학과·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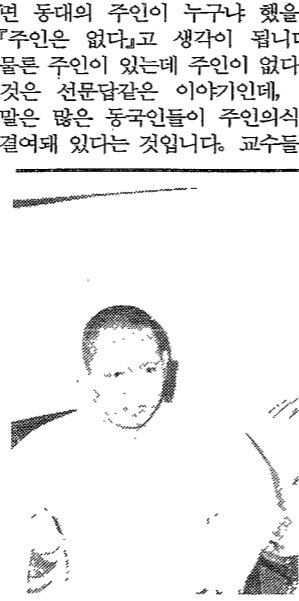
사회:고영섭

(불교대 불교학과)

일시: 10월 28일

오후 2시

장소: 본사주강실



최창술

“교수님들은 자기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동대의 주인이 누구나 했을 때 주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다는 것은 선문답같은 이야기인데, 제 말은 많은 동국인들이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간

소련과 김일성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하는데서 탈피해야 합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에 대립관계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진보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도 어떤 공통분모를 확대해 통일을 함으

저 사공없는 배와 같은 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비의 구현도 막막해도 모두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것은 옳고 그른것은 그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애와 자비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정구=동대의 건학이념은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원공공체 정립의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최창술=사람은 개인에게 이름이 붙어있고 집단도 집단 나름대로 이름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를 내세우다 보면 주권이 일그러집니다. 학원공공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교수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학문만이 최고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교수의 경우 자기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원공공체제를 지향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학이념을 살려 학원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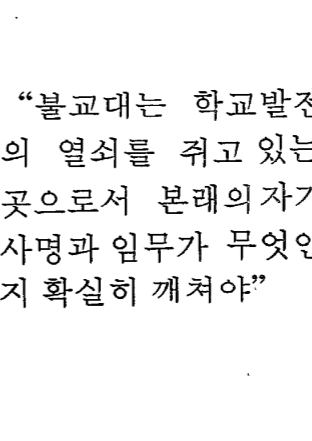


이만근

“대학원 학생과 교수 간에는 아직도 봉건적 도제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어 학원공공체 건설에 장애”

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과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똑같이 버렸 습니다.
지금 교수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와 비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양하고 학사운영에 학생·교수·직원들이 모두 참여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체질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대학에는 현재 20여개의 대학이 연구소가 있는데, 이것을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운동을 학원자주화투쟁에 종속시킨다면 학원자주화투쟁을 학생운동에 종속시키는 것은 양자가 공히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사운영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고 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 지금까지의 초대학사운영은 8개학협의 이후에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직적 실현의 과정이 없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교과과정개편의 문제는 학생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간의 긴밀한 연관관계,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들의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빛의 진보적 강좌개설만 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고영섭

“불교대는 학교발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으로서 본래의 자기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쳐야”

문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인접 학문과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학과 사회학, 불교학과 철학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러한 관계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창술=건학이념의 구현방법에 앞서 먼저 본교의 건학이념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들은 권위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학생들도 학내구성원의 한 주체로 인정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이나 학사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지금까지의 대학은 모두 다 문제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편견주의 사고방식이, 교수님들에 대한 지나친 은 오히려 학원공공체 건설에 장애를 일으키는 오히려 학원공공체 건설에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교수와 학생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학원공공체 건설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그러면, 종합대학으로서의 본교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최창술=종합대학으로서의 본



강정구

“학사운영에 교수·학생·직원이 모두 참여해 학원의 민주주의가 체질화 되어야”

관계는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오히려 역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일제잔재의 청산없이 과연 민족주체적인 대학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만근=일제하, 미군정기를 거쳐 근현대로 넘어오면서까지도 우리대학이 안고있는 기본적 문제는 대외적 의존성입니다. 대학의 구조 즉 대학구성원간의 관계에서도 식민지적 잔재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있는 학문의 내용도 대외적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그러면, 종합대학으로서의 본교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최창술=종합대학으로서의 본

교의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불교의 근·현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은 불교를 전역적이고 인제나 집권당과 결탁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불교자체가 자생력이 없기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있는데 호국이라는 차원에서 시각을 맞추다 보니 그러했는 것입니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해선사처럼 조선불교의 개혁을 얘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근자에 와서 근기가 약해져서 그런지 중단의 집권층의 눈치를 보느라 갈아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불교 근·현대사속에서 삼보정체를 모아 출발한 우리동대도 80년정성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

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동대출신 비동대출신으로 나뉘어 지고 점멸되어 에게지만, 동대출신이 총장이 되어야 된다는 비동대의 시대는 흘려보내는 생각이 노골화 되고 있는 때, 이것도 주인의식을 결여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제단도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재원의 확보 없이 우리학교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누가 교양이 뭐에다 방울을 다는 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우리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제가 생각하기에는 최 교수님의 말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의 재원확보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외인 방안에만 치우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전철당시라도 그 이후에 동국대학교의 재원은 팽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부적 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재원만을 확보했음에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다음으로 불교대학의 위상과 앞으로의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강정구=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사회는 현재 민족·민중·

로써 세계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창술=저는 이명에서 출발한 모든 대학이 민족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민족대학을 능가하는 부분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회운동주의라는 민족을 초월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민족대학이라는 역할은 작은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학이 민족대학으로서 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살도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근=저는 최교수님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대학이라는 것은 세계의 대학으로 가는 과도기적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통일 문제만해도 세계의 냉전체제 논리를 해소하기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학이 기여하는 것 역시 보편적 의미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보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학교의 건학이념을 어떻게 구현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최창술=건학이념의 구현방법에 앞서 먼저 본교의 건학이념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0학년도 전기 대학원 학생모집

1990학년도 전기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일어일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
사회계: 철학과·국민윤리학과·연극영화학과·교육학과·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통계학과·농학과·임학과·조경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체육학과·기정학과·한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선학과·인도철학과·국어국문학과·영어영문학과·사학과·미술사학과·철학과·국민윤리학과·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정치학과·행정학과·경찰행정학과·사회학과·경제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회계학과·농업경제학과·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통계학과·농학과·임학과·응용생물학과·전자공학과·전자계산학과·전기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과·화학공학과·식품공학과·산업공학과·기정학과·한의학과

1990학년도 전기 지역개발대학원 학생모집(야간) <경주캠퍼스>

- 모집과정 및 전공: ①모집과정: 석사과정, 연구과정
②모집학과: 개발행정학과-개발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1989년 11월 16일(목) - 11월 23일(목) 17: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89년 11월 25일(토) 오후 2시 본 대학원(진중관 1층)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 논문, 서류전형 및 면접
②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①기업체, 정부부서 실무경력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②공무원 전원에겐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을 지급함
③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등 각종 장학특전이 있음

관리자과정

- 모집인원: 0명
- 입학자격: ①정부 각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②자 균의 영관급 장교
③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④공공기관(단체)의 간부
- 원서교부 접수 및 전형일시: 장소: 석사·연구과정 일정과 동일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기타 상세한것은 본 대학원 교학부에 문의 바람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번지
전화: (0561)2-013116 (교)263, 직통(0561)41-4131

동국대학교 대학원

80년대는 굴종과 억압을 거부하는 민중들의 합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였다.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반미·조국통일투쟁, 조국통일투쟁,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이 실천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전의 운동에서 보여진 낭만성이나 치기성을 극복한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질적발전과 더불어 양적인 면에서도 운동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변혁은 이제 더이상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다. 이번 연재는 80년대에 크게 부각되었던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승리하는 90년대 전망하고자 마련하였다. <편집자註>

I. 들어가며

「미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45년이후 식민지 역사에서 이러한 물음의 꼬리는 끊이지 않았으며 늘 우리의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기간의 자료와 역사적 사실들만 놓고 보아도 미국은 한민족에게 커다란 존재임에 틀림없다.

해방정국을 맞이하며 해방군으로서, 이승만정권의 붕괴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한국민중에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미국관은 80년 광주항쟁을 계기로 우방에서 외세로, 친미에서 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피땀겨울을 거치며 발전해온 민족해방운동은 이제 본질적 문제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자주적진출을 반미자주화운동이 현실임을 말해준다.

인식의 차이를 넘어선 실천의 문제는 기간투쟁에서 나타난 패배의 교훈을 되새겨볼 때, 참다운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미자주화운동의 신기원을 이룬 80년대를 평가·고찰해볼 때 아울러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차지하는 반미자주화운동의 의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후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현시기 우리의 임무라 생각된다.

II. 반미자주화운동의 의의

한국사회에서 미국은 실질적 지배자로서 존재해왔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반미자주화운동의 본질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미국의 통제와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애국민중운동에 있어서 반미운동은 민중의 본질적 요구

이며 변혁운동의 궁극적 지향인 것이다. 이리하여, 반미운동은 각계각층 민중들의 투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나며 변혁운동의 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의 총체적 지향의 문제이다.

역대 독재정권이 바뀔때마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던 적은 없으며, 대소진진기로서 한민족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한민족의 이해와

있어서 미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이후 일련의 반미투쟁을 통해 증폭의 계기를 창출함으로써 더욱 가속화 되었다.

80년대 광주미문화원방화로부터 분출된 반미운동은 전체 80년대 반미운동의 의식발전에 대중적기초가 되었으며 점차 미국과 한국민중간의 힘의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80년대 반미운동은 발전단계에 따라 크게 세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으며, 투쟁의 소규모적 분산성과 민족민주운동체력의 약화미비로 정화한 반미자주화의 관점으로 나서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투쟁은 명확히 변화된 미국에 대한 한국민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2. 반미운동의 대중적 각성: 83~85

광주학살과 군사독재정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초보적 반미의식이 광범히 확산되면서 청년학생들의 전국적 투쟁과 수개방을 계기로 한 민중들의 투쟁은 서서히 반미운동의 대중적각성으로 나아간다.

학생들의 초보적인 반미의

◇글 실는 차례

1. 반미 자주화에서 제기된 문제
2. 조국통일 운동의 성과와 한계
3. 노동운동과 전위당 건설
4. 통일전선의 문제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자생적 반미운동과 사민주주의의 독자적수준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반미운동의 대중적각성이 희박하나 모든 투쟁이 군사독재정권의 문제에만 전제되는 형태로 전제화되었던 의식적 반미운동의 유보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반미운동의 민주화 통일투쟁과 결합되어져 진행되는데 한계를 노정하며, 이후 반미운동이 반미운동원론과 반미관점상설의 편향으로 반복되어지는 현상을 가져온다.

대중의 반미의식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반미운동은 전개하는 문제가 이후 변혁운동의 과제로 제기된다.

IV. 이후 반미자주화운동의 과제

먼저, 궁극적으로 볼때, 미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것은 주한미군철수로 귀결된다. 그것은 주한미군철수와 민족자주실현과의 관계에서 도출된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선 그 자체로서 독립국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며, 특히나 한반도 남단에서의 주한미군은 현지지배를 보장하는 핵심적 무력이며,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지배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제3세계비동맹국가에서는 독립국의 첫째정표로 미국군대나 기지의 주둔여부를 들었고, (물론 예측적조약과 동맹관계에 의한)이렇게 볼때 한반도 남단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역사적으로 군사강점으로 시작하여 미국의 식민통치를 실현하는 유력한 근거로, 창구로 나타난다. 그것은 군사정권, 국민동원권, 국도이용권 등 한국가의 최후적요구사항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모두 틀어쥐고 있다는 것과 함께 민족의 이해에 배치되는 1천개의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정권교와 협력을 형식화한 군사교류를 통해 한국군지위부하와 정안군사자와 정부요직관료에 대한 가장 큰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독재정권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현단계에서 현실적실천의 과제로 나서는 반미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미국의 독재지배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현 민주화투쟁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부수하고 반미운동의 대중화에 주요한 내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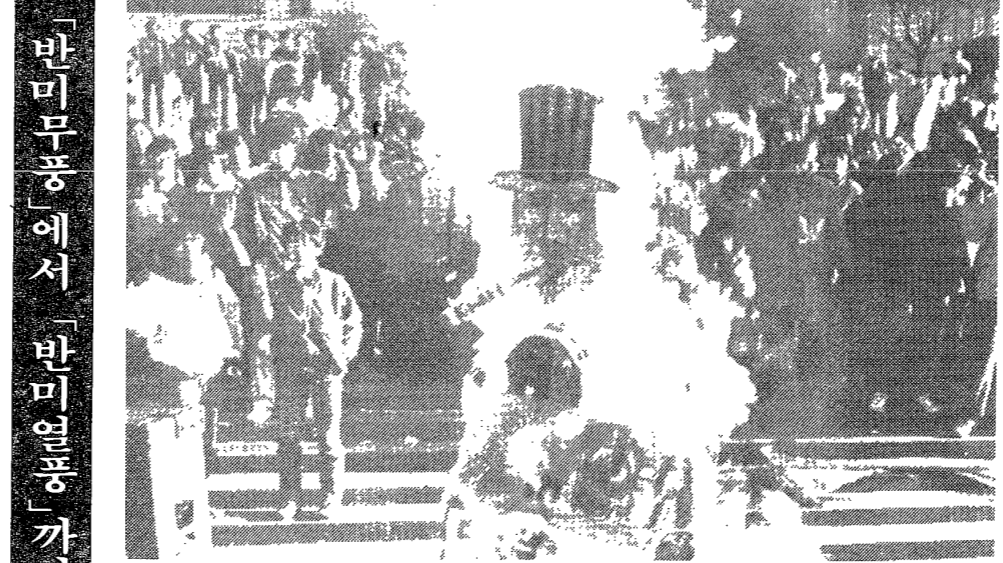
두번째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반전반핵운동을 주한미군철수와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비핵, 군축, 평화정착체결등의 내용을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함이다.

세번째는 미국의 한반도분열정책에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대리군정을 합법화 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초보적인 민족대단결의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적 해결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이세용 <경상대 무역학과>



“자주없이 민주없다”는 교훈 얻어



서울대등 10개대 학생들이 서울대 교정에 모여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항의하는 교내시위를 벌이던중 미국상품으로 만든 인형을 불태우고 있다.

「반미투쟁」에서 「반미열풍」까지

요구에 정면 배치된다.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궁극적 지향인 사회민주화도, 조국통일을 이루는 것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요원의 길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반미자주화운동은 단순히 궁극적 지향의 문제에만 바라는 관념이 아니며, 당면한 반혁운동의 과제에서도 도출되는 과제

이다. 반독재민주주의의 차원으로 발전되어 85년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으로 분출된다. 하지만 이 투쟁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을 고립화시키려는 연결고리로 파악하면서 반미운동에 대한 이론과실천의 근원적한계를 보여주었다.

한편, 미국은 국내내무역적자를

보호무력으로 강화하며 한국에 대해 농축산물개방을 강요한다. 그 유망했던 소규모미국산의 과잉으로 나타났던 이시기는 농민들의 거센 수개방대투쟁이 일어났고, 이 싸움은 투쟁방식의 적극성과 정치투쟁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후속전환투쟁과 대중투쟁으로의 연결미비등으로 인하여 선두투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의 산발적인 선도로 반미운동과는 달리 광범한 대중적 반미운동으로의 단조를 내포한 점에서 주목된다.

광주항쟁 계기, 「우방」서「외세」로 전환 수입개방 압력-노동자·농민도「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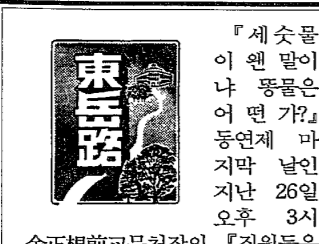
정의 문제이다. 한국에서의 반미운동의 성장이 각계각층민중들의 민주와 열기가 고양되고, 이루어졌으며, 더욱 가속되는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속성으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80년대 반미운동의 평가로 될 것이다.

주시민의 반미의식은 12월 광주미문화원방화로 나타난다. 이것은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위한 거사였고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었고도 평가되어진다. 이후, 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 강원대 성조기 소각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광주학살의 성격으로 미국을 폭로하는 상징적 투쟁이며, 반미운동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변혁운동의 차원에서 볼때는 민주화를 가로막은 미국의 책임을 폭로하는 형태로 밀려서 민주화

로 나타나게된다. 율령픽간중에서 나타난 반미감정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 축적된 반미운동의 영향과, 농축산물물민이 아니라 모든분야에서의 개방압력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87, 88년 투쟁의 성과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또한 조동운동의 배경으로 하고있다. 또한 조동운동의 파괴는 분단의 책임자로서 미국을 폭로해왔고 반공논리화되어 인종대단결의식의 고취는 민족자주주의적으로도 양되어 반미운동이 대중적차원으로 나가는데 일조한다.

III. 80년대 반미자주화운동의 평가

80년 광주항쟁은 한국민중에게



세수물이나 때를 씻어내... (본지 1월30호 기사내용)라는 평안을 규탄하는 「교부처장 퇴진및 동국국방전을 위한 노조 전진대회」가 노조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교부처장의 망언으로 인한 파문은 자못 커 직원들은 이날 대회에서 오히려 총학 추최의 어느 집회보다도 호트러짐 없이 하나된 모습이었다.

직원노조 문옥래 총무부장은 이날까지의 경과보고에서 「지난 10월4일 동대신문 기사를 본 직원들의 분노는 긴급운영위원회에서 교부처장 퇴진을 결의, 그동안 총장면담 및 간담회등을 통해 6차례나 전달했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이에 분노한 이진배위원장, 박충방 김윤길부위원장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본관2층 세미나실에서 단식농성을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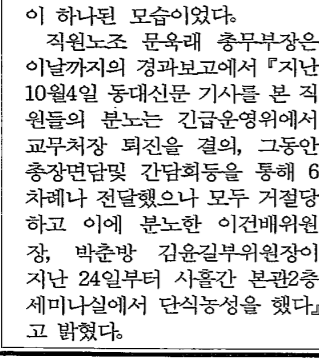
이날 대회의 결의를 모은 이후 투쟁방향 결의중 박표에서 백경선 강의지도부장은 「27일까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직원 전원은 병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 때문이었다는 것.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단한명의 이탈자도 없이 2시간 가까이 묵묵히 서서히 하던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병가 원에 서명을 했다.

숙연한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직원들은 「직원들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서로 확인하며 자신감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다음날인 27일 金正根교수는 교부처장직을 그만둔다.」고, 동국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될때만이 동국의 발전은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이만섭 記者)



1990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 학생모집 (야간)

1. 모집과정 : 석사과정, 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2. 모집학과 및 전공
 - ①행정학과 : 일반행정, 공공정책, 관광행정, 지역개발, 언론홍보
 - ②안보행정학과 :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 ③안전관리학과 : 안전관리
 - ④공안행정학과 : 경찰행정, 사법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 ⑤복지행정학과 : 사회복지
 3.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출신학과에 관계 없음)
 - ②연구과정 : 석사과정에 준함.
 - ③행정관리과정 : 가)정부 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각군의 영관급장교 다)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라)사기업체의 임원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89. 11. 8(수)~11. 15(수) (평 일: 17:00 토요일: 휴 무)
 5. 전형일시 및 장소 : 1989. 11. 18(토) 14:00 본 대학원
 6.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 전공(행정학)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 ②연구과정, 행정관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7. 특 전
 - ①기업체·정부부서 장기실무경험자는 전형에서 우대함.
 - ②공무원 전임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 30%)을 지급함.
 - ③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등 각종 장학혜택이 있음.
 - ④사회복지 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과과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8141/5(교)2263 직통 267-8574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0학년도 전기 경영대학원 학생모집 (야간)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사과정
 - ①경영학과 :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 ②회계학과 :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③무역학과 :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 ④경제학과 : 관리경제, 국제경제
 - ⑤전자계산학과 : 시스템스, 데이터베이스, 전자정보처리
 - ⑥노사관리학과 : 노사관리
 - ⑦부동산학과 : 부동산관리
 2. 지원자격
 - ①석사과정 : ①4년제 대학졸업자 및 1990년 2월 졸업예정자. (비경상계도 응시할 수 있음)
 - ②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③기타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연구과정 : 석사과정에 준함.
 - ③관리사과정 : 가)회사·사회단체의 간부 및 대외, 나)노조간부 다)고급공 4)정부 각기관 5급이상 공무원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89. 11. 16(목)~11. 23(목) (평일: 17:00, 토요일: 12:00까지)
 4. 전형일시 및 장소 : 1989. 11. 25(토) 14:00 본 경영대학원
 5.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 영어, 논문, 면접(단, 직장에서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우선 참작함)
 - ②연구과정, 관리사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6. 특 전
 - ①해외 자매대학 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 있음.
 - ②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③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노조간부(노사관리학과에 한함)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기타 상세한 것은 본 경영대학원 교과과목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8145/9(교)2273 직통267-8140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변혁의 전국적조직구심체

전노협건설의 현황과 전망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회를 주축한 조직적 주체는 「전국 노동법개정투쟁본부」라는 투쟁체로서 각 지역의 노조협의회들이 수평적으로 참여한 임시적 투쟁체였다. 그러나 이 대회 이후 그해 12월 전주에서는 이러한 전국적 차원의 연대를 상설적 기구화하여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산하



◇「지역업종별 노동 전국회의」가 지난날 22일 노동법개정투쟁의 계획과 함께 전노협건설의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결정함으로써 전노협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에 「전국 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라는 상설적인 투쟁집행체제를 두는 등 보다 안정적인 전국적 조직체제를 수립으로써 한층 그 조직적 수준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전노협 건설은 그 연속선상에서 기왕의 「지역·업종별 노동 전국회의」가 안고 있던 조직적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결로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전국적 조직체제를 건설해냄으로써 지난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강화되어 온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조직적 발전에 일익을 끼치는 것이다. 이 일획의 의미를 정확히 평가해 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남한사회에 있어서 거의 최초의 자주적(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혁적) 노동운동을 대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노동자계급 대중운동으로서)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이 갖고

차원 이상으로) 아니었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규정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어떤 방향성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노동운동의 의식적이며 조직적인 부분들도 거의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폭발성이 일련의 조직적인 흐름으로 전화되어 나가는 과정 또한 사실은 자생적인(자연적인) 과정이었

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본격적 전개는 「추진적 건설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하여 결국 절충적인 결론을 낳았다. 제7차 전국회의에서 구성된 전노협준비위원회와 기존의 전국투쟁본부(중양집행위)가 전국회의의 산하에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적 단계는 제11차 전국회의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에서 전

노협건설의 계획과 일정을 확정할 때 마무리되고 90년 1월말의 전노협 건설이라는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전노협건설을 둘러싸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제2노총론」과 「이용노동조합론」사이의 쟁점과 그와 관련한 임금노동조합의 합법성 쟁취투쟁과 임금협약의 전노협 건설 참여 문제, 민주노동운동의 이념적 방향성의 문제 등의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쟁점들을 둘러싼 관점은 이미 민주노동운동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남한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운동이 갖는 사회변혁적의미의 지대함에 있다. 현재 민주노동운동은 이념과 있는 지도부가 이 점을 인식하고 있진 않는 것인지 아닌지는 불변의

‘전국회의’ 한계 극복하는 자주조직돼야 민주노동운동의 이념적방향 해결 시급

있는 역사적인 역할과 임무가 운명적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과 그 맥을 계속시키고 있고 현재 전노협 건설이라는 노동조합운동내 소수파의 조직적 움직임에 이렇듯 지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 움직임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성격이 기존 한국노동조합운동과는 다른 성격의 노동조합운동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성격이 기존 한국노동조합운동과는 다른 성격의 노동조합운동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성격이 기존 한국노동조합운동과는 다른 성격의 노동조합운동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투쟁을 겨냥한 전국적 차원의 투쟁체인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였다. 88년 11월 연세대의 여의도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투쟁체는 지역·업종별협의회들이 주축이 된 전국적 연대를 고무시켜 같은해 12월 마침내 상설적 회의체로인 「지역·업종별 노동 전국회의」를 출범시키게 된다. 이후 지역·업종별 노동 전국회의의 산하에 전국 노동법개정 및 임금상투쟁본부(전국투본)를 두고 89년 상반기 임무를 전개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상반기 내내 계속적으로 가해진 정권의 노동운동담압은 「지역·업종별 노동 전국회의」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이며 단변호 전국회의의 의장이 구속되는 등 지도력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담압은 기왕의 전노협 건설(전국조직 건설)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제7차 전국회의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전노협 건설 논의는 정치권력의 담압에 대해 민주노동운동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성격도 띠

사실이다. 이러한 (변혁적)관점에 설 때 현재의 민주노동운동이 안고있는과제가 단순히 계급적이며 변혁적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점은 정확하게 해명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한계는 사실상 현재의 민주노동운동이 1948년 전협의 해체 이후 최초로 전개되고 있는 자주적인 노동운동이라는 점과 우리 사회변혁운동의 일련성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운동의 전략적(전술적)방향성이나 조직적 방향성과 관련한 모든 쟁점이 있어서 그 출발은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철 (자유기고가)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이행

— 헝가리 사회주의의 개혁방향과 진로

I. 사회경제적 배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헝가리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나라의 역사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나치 독일의 승리가 이어 결정적으로 합입이 해방된 헝가리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논리에 따라 반하틀러 투쟁에 참여한 모든 정파가 참여한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이 연립정부에서 공산당은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또한 대중의 지지를 받아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이 단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1948년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헝가리 근로자당」으로 통합되면서 집권당이 되고 여타의 정파는 권력에서 배제되는 스탈린주의적 일당체제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도 스탈린주의적인 과도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그대로 모방되었다. 「사회주의의 본래적 목적」으로도 불리우는 이 의면적 축적모델은 공업화를 급속히 촉진시킨으로써 헝가리를 공업의 비중이 높은 공업국가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분업화와 같은 사회주의의 목표가 달성되었고 사회적 지위향상·이동의 기회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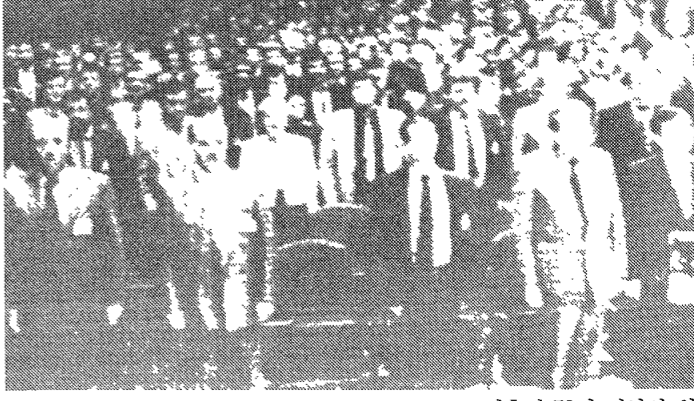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업적들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계기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명령에 따른 경제발전의 위해 관료체제가 성장했다는 점이다. 중앙기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명령체제는 모든 하부 국가기관 및 사회조직 뿐만 아니라 당 하위조직으로부터도 일체의 자립성을 박탈했다.

민중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결여되고 상하급식의 관료체제 속에서 봉급을 정하는 계층이 확고해짐으로써 사회주의의 진정한 자원 낭비의 방지와 경제 발전의 적극적 이용이 실현되지 못한 채, 오히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중산층의 계층적 위기를 체제의 위기로 포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락시키는 데 기여했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로 경제개혁 뒷받침

다당제로 사회주의 건설의 경직성을 완화



◇헝가리 공산당 대의원들이 「사회당」을 창당할 후 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말지 10월호)

1984년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장경제부문이 확대되었으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II. 경제부문의 개혁

지금까지의 헝가리 경제개혁의 기초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국가소유에 기본을 두고 시장경제로써 보완함으로써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말살되었던 개인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20여년에 걸친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 94%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헝가리에서도 소유관계의 개편이 경제개혁의 핵심을 이루다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국가소유, 소규모 사적소유, 개인(가족)소유 이외에 노동자 주주제에 기초한 주식회사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III. 정치부문의 민주화

헝가리 사회주의당이 창당되기 전까지 헝가리에서는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이외에 사회민주당과 독립노동당이 합법적으로 정당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의사, 교사, 엔지니어가 중심이 된 민주화당과 부르조아 체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동맹이 정치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새로운 헝가리 사회주의당의 창당은 헝가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탈린주의와의 완전한 결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혁적 당강령에서 사회주의당 민주적 사회주의의 원칙적이고 평화적인 이행을 최고의 목표로 선언했다. 헌법에 의해 다당제가 보장되었고 사회주의당은 이제 더 이상 영도하는 당이 아니라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당과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당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었다. 사회주의당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중앙계획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시장경제를 결합한 혼합된 소유를 가지는 사회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구하는 헝가리 급진개혁파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서구의 우파 사회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주의의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급진개혁파는 사회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경직성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즉, 헝가리의 개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회귀가 아닌, 좀더 진보된 사회주의로의 첫 걸음인 것이다.

(특집부)

1990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학생모집 (야간)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각 약간명
 - ①교육학 과: 교육행정전공, 교육경영전공
 - ②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윤리교육전공, 철학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한문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불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전산교육전공, 종교교육전공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에 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1989. 11. 16(목) - 11. 23(목) (단, 토요일은 13:00 마감)
- 전형일시 및 장소: 1989. 12. 2(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석사과정: 전공, 교직교육 및 면접
 - *단,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실기시험 포함
 - ②연구과정: 전형(필기부과) 및 면접
 - *단, 미술교육전공 응시자는 활동실적(포트폴리오) 포함, 작품 20회 이상 2점 제출
- 특전
 - ①공·사립 교직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 ②교육학과(교육행정, 교육경영전공)에 지망하는 초·중·고 교장·교감 장학금은 특별 전형함.
 - *기타 상세한것은 본 대학원 교과과목 문의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8141/5 (교) 2282, 2283 직통 279-8052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학년도 전기 정보산업대학원 학생모집 (야간)

본교 정보산업대학원은 컴퓨터, 통신, 언론의 융합과 확산이 창출해가고 있는 정보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야간 특수대학원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정 및 전공: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정보전산학과: 정보전산전공
 - ②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출판잡지전공
 - ③산업개발학과: 정보통신전공, 산업개발전공
-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 4년제대학 졸업자 및 90년도 2월 졸업예정자
 - ②연구과정: 석사과정과 동일
 - ③관리자과정: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 중견관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1989. 11. 20(월) - 11. 30(목) (평일: 17:00, 토요일: 14:00까지)
- 전형일시 및 장소: 1989. 12. 2(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①석사과정: 필기시험(영어), 서류전형, 면접
②연구 및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전
 - ①현직인원인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함.
 - ②공무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견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함.
 - ③재학시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 ④학과지원은 출신대학 전공학과와 관계없음. (본 대학원 졸업생은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교과과목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267-8131/9, 8141/5 (교) 3292 직통 277-6511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특정집단의 일방적 결정 우려하는 목소리 커져..."

—지난 8월 31일 **李智勳**총장과 **黃彬**경제대이사장이 임시부정사건과 관련, 대검중수사본부에 의해 전격 구속된 것은 대학의 최고책임자가 구속됐다는 대학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을뿐 아니라 83년 성상의 「민중동국」에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학자투의 모범이라고 불리워질만큼 투쟁적으로 경취한 성과물들을 토대로 학내 각 주체가 대등단결해 민주적 총장선출의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기였기에 본교에서는 「동국의 자주적혁신을 위한 공동대행위」를 구성하는 등 즉각적인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대위조차도 「민주총장

관철시키려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직원노조에서 「여론수렴위원회」구성 제안

—구체적으로 지난 23일 공대위에서 직원대표가 「여론수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여론수렴을 통한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했을때 교수회는 「새중대」에를 들어 문교부승인여부를 언급하며 「여론수렴위원회」라는 기구를 따로 만들지 않는 대신 「의사결정권」, 「경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이야말로 학생·직원들의 정당한 여론 수렴의 창구가 되지못하고 명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학생대표나 직원대표를 기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회의 현재상황을 한마디로 표현 한다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상당히 암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체적 흐름과 판도를 보면 「학생회의 무기력」과 「교수들의 두드러진 활동」의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입력에 의해서 선거 시기가 겨울방학 즈음으로 늦춰지려는 인상이 짙는데 그것은 이미 **李**총장이 교수회에 총장선출방안을 이양시킬때부터 생각했던 시나리오로 보여지고, 어찌피겨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되면 학생들이 등록을 안하게되고 또한 학생회자체가 무기력하게되고 교수회만의 독자적 선출방안 이외의 선거가 치뤄지더라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 나왔지만 교수회에 대해서 약간 덧붙이자면 직원노조에서 「여론수렴위원회」방식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교수회 대의원



◇하부대중의 역할을 결집시킬 수 있는 총학생회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12일에 있는 총정실 점거농성의 한 장면)

자주, 총장선출 문제가 제기됐을때 이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반학생들의 민주총장선출 관심도 극히 저조

—일반학생들은 민주총장선출의 중요성은 물론 언제 총장선거가 있는지 그시기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올해들어 학자투도 침체되고 총학생회 또한 집회 하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함으로 인해 하부대중들과 전혀 연결이 되지못한채 집행부만의 투쟁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의 학생회를 학생회 체제의 이완현상이라고 예기를 하는데, 단대학술제나 동연제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지조를 들 수 있겠지요. 대동민국 모의 국회행사 예년에는 2백 내지 5백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단 15명만이 팔각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로보여집니다. 결국 학생회 체제가 흔들리던 다른 여타 사업도 한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겠지요.

—현시각이 각 단대의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이니만큼 향후 사업의 전망은 단대장 선거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회의 무기력 지속적으로 드러나

—학생회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대중투쟁의 원리에 입각해 총학생회 운영에 시 단대로 단대에서 파도 내리려는 토론제안이나 이러한 토론제안에서 도 토론의 결과물로 실행방안이 도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들은 많이 지적된 것 같은데 대안들이 아직까지 모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총학생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과 총장선거에 있어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더불어 재단혁신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총학생회는 전반적인 학자투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총장 선출에 관한 것은 처음에는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1·2차 공청회를 통해 학생·직원들도 학교의 주체로서 총장선출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원칙을 주장했으나 현재는 수장·보안 직업을 거쳐 총장선출에 참여한다는 원칙은 교수회도 방법 상 용용성을 발휘해 파산지경은 없다. 그러나 투표과정에 참가해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총학생회와 직원노조가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재단혁신방안은 이사회의 전면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정리=박영림기자)

특별기자방담

선출」이나 「재단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들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어 동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자리는 이러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더 많이 직접 접촉한 여려기자들을 통해 그 구체적 대안까지는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전 동국인이 주제로 나눌수 있는 방법만이라도 찾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교수회의 태도 주목되고 있어

우선 지금 각단체별로, 주제별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30부정사건이후 교수회 입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학교의 모순을 혁파하려는 감각조차 못잡고 있는, 단순히 이원사태를 「부정」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칭찬하고 대국 인사파문밖에 내지 않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라는 것은 이러한 부정입학사건이 일어난 재단의 무능력을 바로잡겠다는 뜻이 아니라 칭찬한 학교상황을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총장선출을 앞둔 현실에서 교수회는 지난날 10월14일 비상총회를 통해 결의했던 「대표권을 교수회 대외위원회에 일임해 교수회 대외위원회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그 대외위원들이 학생대표·직원대표와 만나서 모두가 합의하는 총장선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원칙,하에 비상총회를 마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틀을 가져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전체총회나 비상총회에서 달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수회의 파격적 모습들을 상기해 볼때 가장 대표적인것이 교수회 대외위원회의 행동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대표성을 교수회 대외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닌 가」하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직원대표와의 3차례 간담회에서 나타난 교수회의 모습은 자체입장은 굳건 상태에서 학생·직원들에게 교수들의 입장을

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총장으로서는 합당한 인물을 선정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예를들어 교수회에 생각하고 있는 「50세이상 또는 정교수정도의 교수수를 총장후보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20개 내지 30개의 여러 문항을 뒤 뒤 선거권을 지닌 주체나 사람이 그것을 제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다라던가 하는 기준이 지금상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총장선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시기에 공대위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재단혁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공대위에서

—또한 구조적으로는 8·31부정입학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단이 어떤 재정지원을 해준다면 재단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바에는 재단의 구조적 틀을 확고히 하고 보다 민주적인 인사들에 의해 학교의 일정부분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구조혁신의 방안으로서 재단혁신연합회의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재단이사회의 전면적 퇴진이 불가피합니다.

재단 이사회의 전면 퇴진 가능성 희박해져

그러나 현재 재단의 형태대로보아

정을 확정짓는다면 대표·투표를 관리 해야하기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또한 간파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특히 교수회가 말한바와 같이 각후보자로부터 논문이나 경력의 쓴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역할을 선관위에서 맡게 된다면 구조적인 틀에 의해 총장후보로 어느정도 수준이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李**총장이 작년에 학자투를 거치면서 그 입지가 매우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장후보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8·31 부정입학 사건이 **李**총장에게는 역전의 기회였다고나 할까. 자신은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부심 판결에 의해 황이사장이 구속되지 않았는데 반해 황이사장은 증거인멸우려로 보석까지 기간된 점, 총장구속시 법률교차원에서 불교단으로 간주하고 단재행동까지 불사한 점, 동국총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세간의 동정표가 모아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차기 총장으로 나설 만큼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총장선거에 학생을 비롯한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교수회에서 마련한 대화창구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수회주도의 학원

동약의 개혁의지, 민주총장 선출에 모아야져 교수회만의 입장 관철시키려는 모습보여 주체참여보장은 동국 혁신의 첫 걸음

—민주총장선출을 앞둔 현실에서 교수회는 지난날 10월14일 비상총회를 통해 결의했던 「대표권을 교수회 대외위원회에 일임해 교수회 대외위원들이 학생대표·직원대표와 만나서 모두가 합의하는 총장선출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원칙,하에 비상총회를 마쳤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틀을 가져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전체총회나 비상총회에서 달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교수회의 파격적 모습들을 상기해 볼때 가장 대표적인것이 교수회 대외위원회의 행동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대표성을 교수회 대외위원회에 맡긴다는 것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닌 가」하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직원대표와의 3차례 간담회에서 나타난 교수회의 모습은 자체입장은 굳건 상태에서 학생·직원들에게 교수들의 입장을

회에서는 「여론수렴위원회」제도 자체를 확정짓는 것보다는 지금안나고 있는 대외위원과 직원노조와 학생대표의 간담회에서 여론수렴의 형식으로 만나자고 일정부분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동의권등 제도에 대한 부분은 규정안에서 마무리 해야 하며 지금상태에서는 인들이 촛점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후보, 암묵적으로 난립된 상황

—이제까지 암묵적으로 진행되던 각후보자들의 난립상황속에서 공대위라든가 총학생회측에서 준비작업

「재단혁신연합회를 구성하자」라든가 「연석회의를 준비하자」라고 주장하며 재단활성화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것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재단활성화와 거의 구별이 없음을 예견하고도 현 재단이사회의 전면적퇴진이라는 민주총장선출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고 보기에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사진로로 구성돼 있는 재단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총장후보를 복수추천해 승인을 요청했음에도 재단은 열두에 두었던 사람을 총장으로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것은 그간의 재단이 보여왔던 모습을 봤을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불구하고 구속부심 판결에 의해 황이사장이 구속되지 않았는데 반해 황이사장은 증거인멸우려로 보석까지 기간된 점, 총장구속시 법률교차원에서 불교단으로 간주하고 단재행동까지 불사한 점, 동국총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세간의 동정표가 모아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차기 총장으로 나설 만큼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총장선거에 학생을 비롯한 각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교수회에서 마련한 대화창구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수회주도의 학원

참석자 : 본사 **全** 기자
 때 : 1989년 10월 28일 오후 3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교육실습신청서 접수

1990학년도 교육실습 예정자들의 교육실습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 하고자 하오니 대상학생들은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할것.

- 대상자: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90년 4학년)
- 자격요건
 - 가. 교과이수 명단이 문교부에 등재된 자.
 - 나. 교직원 전공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이상 가능한다.
- 신청서 접수기간: '89. 11. 1 - 11. 7(6일간)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학과.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접수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 대상자
 - 가. '89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중 사범대학생 및 교과과정 이수자.
 - 나. 실과계 지형학과(농, 임, 농업경제, 전자공, 토목공, 전기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학과:81년 이전 입학자) 졸업 예정자.
- 자격요건
 - 가. 교과이수 명단이 문교부에 등재된다.
 - 나. 교과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인자.
- 접수기간: '89. 11. 1 - 11. 7 (6일간)
- 제출서류: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소정양식)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학과
- 검정료: ₩2,000(실과계 준교사 발급신청자만 해당됨)
- *유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1989년 10월 30일

사 범 대 학 장

무료 건강상담 안내

본교 부속기관인 동국한방병원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무료 건강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대상: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일시: 1989. 11. 8(수) 13:00~17:00
- 장소: 후생복지처 상담실
- 상담의사: 동국한방병원 원장 이종형박사
- 상담내용
 - △질병등 건강진단에 관한사항 △고질적인 악성 질환 △스케줄개선 등
- 상담신청: 후생복지처에서 사전 신청접수함

※후생복지과 업무안내

- 제3차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89. 11. 13(월) 13:00~17:00
 - 상담변호사: 김익 상동문
- 제2차 여권 발급 신청 접수
 - 89. 11. 15 17:00까지

1989년 10월 30일

총 무 처 장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 입영원 취소대상 안내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입영원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동대학 또는 동대학원의 재학생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 또는 입영을 연기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3월 17일부터 재학생의 면학 분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개선 처리하고 있다.

- 취소대상
 - △징병검사를 받기전에 취소를 원하는 자는 이를 취소하고 징병검사 연기
 - △징병검사 결과 입영대상자 또는 입영 연기 중언자로서 입영 통지전에 취소를 원하는 자는 이를 취소하고 입영연기
 - △입영통지된 자는 취소하지 아니하고 입영 조치 하되 다른 학교에 편·입학하여 제한 연령내 졸업이 가능한 자는 이를 취소하고 입영연기 처분
- 취소사유 및 구비 서류
 - △타대학 편·입학, 유학, 장학생 선발, 학군 무관후보생 지원서: 학교장 확인서
 - △학비조달 가능등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할수 있는 사유: 본인 및 전권자의 사실 확인서
- 출원관서
 - △징병검사 연기자: 본적지 구, 시, 읍, 면
 - △입영연기자: 현 역: 본적지 구, 시, 읍, 면
 - 보충역: 거주지 구, 시, 읍, 면

서울지방병무청장

제2회 대학원 학술심포지엄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술운동

***발표논문**

기조발제: 이만근(철학·박사 4기)

- 철학분과: 80년대 한국 철학계의 동향과 과제 (윤용택, 철학·박사 4기)
- 문학분과: 80년대 문학정신과 노동문학의 가치 (장시기, 영문·박사4기)
- 정치학분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와 계급관계 (한평석, 정치·석사 4기)
- 사회분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학술적 논의 (이진길, 사회·석사 4기)

***일시:** 1989년 11월 2일(목) 12시

***장소:** 동국관 L301

***주관:** 인문사회 과학 연구회

대학원 학생회

서기 2006년, 17년후가 될 동국 1백주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80년여 성상의 연륜에 걸맞지 않는 오늘의 체제와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하고, 동국 1세기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미 우리는 인간해방을 위한 사회변혁의 주도적 주체로서, 민족과 민중의 대항으로서 우뚝 선 내일의 동국을 건설하려는 학원자주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동국총총의 길림길이 될 민주적 총장 선출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려는 동국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과제를 올바르게 점검하려는 의도로 이 기획을 준비했다. 이는 결코 어려운 공상이거나, 성급한 낙관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로 결집하여 만들어야 할 필자없는 정리의 동국인 것이다.

(편집자)



미리 가보는 東國 1백주년

재단이사회, 전입금 확충 위해 열려 학교발전기금 1천억 모금하기로

재단이사회가 지난달 30·31일 양일에 걸쳐 동국컨벤션센터 15층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이어는 2007년의 재단 전입금 문제를 확정하고 재단이사회의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성과를 발표를 안건으로 열린 이번 이사회에서는 개교 1백주년 기념행사비 명목으로 이사장인 중경스님이 특별사업비 1백억원을 내놓기도 하였다.

첫날인 지난 30일에는 현재 본교 이사 30인이 모여 올해의 재단사업 성과를 반성하고 지속적인 재단사업의 확충을 위해 ▲현재의 재단 이사를 50인 내외로 재구성할 것 ▲동국발전 1천억원 기금모집에 재

단이사들이 앞장 설 것등을 결의했다.

둘째날인 지난 31일에는 오전 10시 학생대표 70명, 직원대표 30명, 교수대표 1백명등 총 3백여 동국주체가 모인 가운데 재단이사들이 1년 동안 동국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례 발표 및 방안모색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날 사례발표에서 국내최고의 재벌인 금대(백상기업 대표) 재단이사인 「동국인의 숙원사업이던 가속사설을 해결하기 위해 신라호텔(서울캠퍼스)·도요호텔(경주캠퍼스)을 지난 9월 인수해 내부수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올해 졸업하게 될 2만 동국인

의 취업지리를 확보해 놓았다」고 말해 학생들의 환호를 사기도 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전원이 본교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에 들어갔는데 5시간여의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1989년 재단혁신을 위해 구성했다가 해체된 바 있던 재단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재단에서는 동국인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세종문화회관도 출연한 인수를 예정했다.

윤민교수 노벨상 수상

본교출신 총6명 배출

본교 윤민(의학)교수가 올해 노벨의학상수상으로 결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AIDS 항체양성환 AIDS의 완전자치법」의 발견으로 인류건강에 크게 기여했기에 수상자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윤민교수는 수상소감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길러준 조국과 모교에 감사하며 동국학풍을 계승했다는데 만족한다.」며 「벌써부터 AIDS의 원균 미국·일본 등에서 퍼져나가는 것도 요충이 생도하는데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불교정신에 입각, 기술지도를 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교는 이번 수상으로 유희철(91년 노벨물리학상) 교수의 수상 이래 6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했다.

경주 백상 대동제 열려

교수·학생 공동주최로 행사다채

개교 1백주년 및 경주캠퍼스 건립 28주년 기념 백상대동제마당이 지난 7일부터 열려 교내일일 및 경주시에서 사흘간 펼쳐진다.

교수·학생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동제의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1시, 개막식이 교수·학생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문단지내 경주캠퍼스 20주년기념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있었다.

이날 최주석부총장은 경주 28년 역사를 통해 「지난 79년 대학원 설립 이래 28년이 지난 오늘 전체 20개 대학 1백여과, 학생 3만여명, 총건물 35개, 1만명수용 규모의 최신식기숙사, 지상 10층 지하 3층 총장서각 12만평의 도서관, 각과별 실험실습실, 편리하고 안락한 복지회관 등 양·질 면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학교구성원의 정진에 의해 선출되어 인사·행정·재정 등 모든 결재권을 지닌 윤민(91년 노벨물리학상) 교수의 수상 이래 6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했다.

정개편, 3차선석회, 재활추위등으로 동국은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대동제를 통해 교수·학생이 한마음이 되며 동국발전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날인 8일에는 본교 상경대 경영학과 홍두계교과와 자매대학인 김길성대학교 미래 조소과 전태태 양의 전통혼례식이 오후 2시 녹야원에서 열렸으며 오후 2시 교수·학생 해방총동맹기념마당(녹야원), 오후 4시 교수·학생 통일노래한마당(노학관), 연극영화과 학회 자제 제작한 「이런일도...」란 제목의 교수·학생이 총장선출문제로 싸우며 벌어지는 분란을 겪어보는 사태가 벌어지는 일출없는(?) 내용의 연극이 오후 6시 王石부총장대동제마당에서 열렸다.

마지막날인 오늘(9일)에는 오후 1시 2만명 수용규모의 윤방메인스타 다음에 교수·학생체육대회가 열리며 이어 5시에는 교수·학생·직원 이 한자리에 모여 대동제를 갖고 막을 내리게 된다.

교과위, 자본주의 비판등 다음학기 과목 확정

지난 3일 「만국대학...」국제학술 심포지엄도 마쳐

교과과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부터 동국관(M501)에서 「교과과정 개편 심포지엄」을 열고, 다음날인 6일, 2006년도 2학기 과목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 新學期(노동경제) 교수대표는 「올해 실시된 교과과정은 노사관계론, 노동발전론등 예년에 비해 획기적인 강제가 다수 실시 되었으나,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시키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지적한 뒤 「2006년 교과과정에는 이상의 보충을 위해 역사발전, 세계철학사등에 관한 강좌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대표 공부해(철학)군은 「이까지 사회과학대학의 학생들은 공산당선언, 앙겔스이론등만을 접했을 뿐 심도깊은 학문을 연구하

지 못해 전문분야의 강자 중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체한 뒤 「보충을 위해서는 공산주의 정치학, 자본주의비판등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공군은 경제학과 경영학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이해태도를 위한 교과과정을 요구했다.

심포지엄과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결정된 내년도 교과과정은 마르크스 기초이론, 세계철학사, 자본주의 비판, 민족비판등을 비롯한 7개강좌가 신설되고 신규교수 강사들의 공개강좌는 오는 15일 일괄 실시된다. 이에따라 내년도 1학기부터는 각과별로 선택과목이 2~3강좌씩 늘어나게 되며, 이수확률도 사회과학대학은 22%에서 26%로 4%포인트로 확정됐다.

열사추모제 지난 29일 열려

참가자 전원 5·18묘역 참배도

「제17회 민족해방열사추모제」가 제39대 총학생회 주최로 학생·교수·직원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9일 만해광장에서 열려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렸다.

李鎭放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민족의 자주·민주·통일, 그리고 동국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싸우다 투쟁의 도장에서 숨진 숭고한 열사들이 자화한 동국과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전체한 뒤 「그 동안 분골쇄신 싸우는 학생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는 본인이하 7백여 교수가 앞장서 참민중의 명, 자주투쟁을 위해 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생대표로 나온 민해운(사학)총학생회장은 「지금의 자주투쟁이 있기 위해 싸운 선배 열사들, 특히 1989년 민주적 총장선거 투쟁과 군사독재타도투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 주신 선배들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1989년의 투쟁에 대해 언급한 뒤 「세계제1의 민주국가, 명문사학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 정진, 또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추모제가 끝난후 참가자전원은 본교 전용노노레일을 이용, 5·18묘역으로 가 열사들의 묘에 참배한 뒤 「민주·민주·동국만세」삼창을 한 뒤 서울캠퍼스로 돌아왔다.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뭐야? 아답! 세계적이긴! 명문대학이 뭐야? 아답!

김일성대학과의 체육대회도 확정



「동국 1백주년 기념식」이 지난 5일 오전 10시 李鎭放총장, 救世재단이사장, 金民忠총동장회장, 民鎭總총학생회장등 관련인사 2백여명과 재학생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1백주년 기념관(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 李鎭放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89년의 총장선거출발점을 계기로 한 학자주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오늘의 동국이 한 국제일의 대학으로 성장했음을 잊지 말고, 이제 선배들의 뜻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세계제일의 대학으로 서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救世이사장은 「동국1백주년 기념사업으로 △학자주의 18주년 자료집 발간 △세계 제1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소련 모스크바 대학과의 자매결연 체결등을 이미

끝냈으며 현재 진행중인 △저자성 15층 지하4층 규모의 기념도서관 △국내 최대규모의 양·한방종합메디컬 센터의 준공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치사를 했다.

한편 지난해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김일성대학과의 정기 체육대회 문제도 이날 최종 확정, 발표됐는데 이에 관해 김일성대학 金鎭華총장은 「오는 2007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각종 학술대회및 체육대회를 상호방문형식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히 이날 참석한 교수·학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이 끝난 후 오후 5시 동국컨벤션 센터 10층 대강당에서는 동국 1백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0개국 20개대학 문화사절단의 축하공연 등이 있었다.

인터뷰

지난 8일로 본교는 개교 1백주년 자주동국 18주년을 맞았다. 이날 있었던 기념식에는 동국발전과 학원자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13·14대 前총장 學自主교수가 전 동국인의 이름으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를 만나 본교의 학원자주화 과정과 그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이 공로상을 수상한 소감과 회고담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學自主 13·14대 前총장

「89년의 민주총장 선출이 동국발전의 갈림길이었죠.

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호감합니다. 그런데,이 상의 진정한 수장자는 지난 89년에 민주적총장 선거제도마련과 재단혁신을 통해 동국주와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던 교수

이응·무등세력을 몰아내고 전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선거제도에 의해 제가 선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총장이 되자 문교부에서는 승인을 할 수 없었다던

별이 하실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동국의 학풍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이 민중의 이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웃은 곧 印象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께 코오롱 맨스타가 드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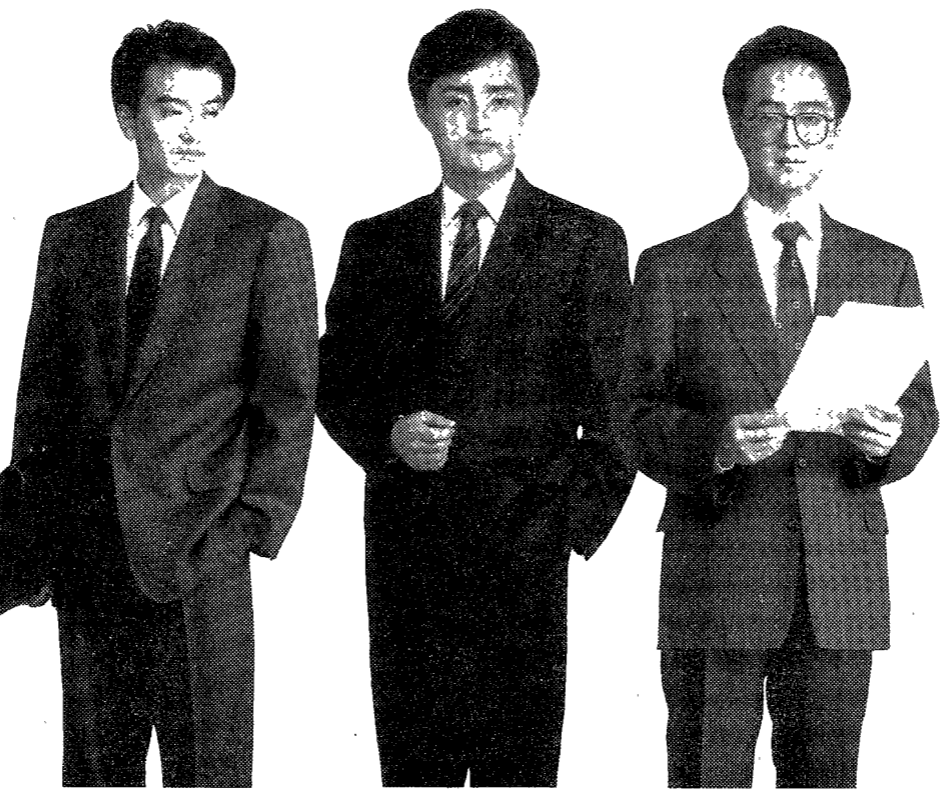


확인하세요, 이제는 메리노 울

사회엔 「투과의례」가 많습니.
입사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생일, 입학식, 졸업식, 상년식, 결혼식, 승진...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세계 장소, 연령, 자취, 신분 등을 통과할 때 가져야 하는 갖가지 의례나 의식을 프랑스의 인류학자 조제(Gempe)는 「투과의례」라고 불렀습니.

신입사원의 첫 인상, 옷차림이 좌우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분은 사회의 배낭입니다. 그분들은 이러한 눈길로 여러분의 대면을 파악하고자 노력합니다. 때문에 복장도 자나년 고가된 의복이나 야세서리, 향수, 헤어프 등은 금물입니다. 후배자이(Fresher) 다은 옷차림, 신선하고 스타트한 인상이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한여름과 개울하게 담여진 구두, 그리고 금방이라도 일할수 있는 의욕적인 모습의 옷차림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의외의 A.B.C입니다.

신입사원의 옷차림 체크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수트는 단정하게 바비, 화복, 브라운색 정도도 약간 진한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지 혹은 무지가지 않된 경우에는 나무 눈에 띄지 않는 패턴을 고르십시오.
●구두는 필수 있으면 수트의 색상과 같은 계열의 색을 선택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암갈색의 색상을 구두와 비슷하게 통일하십시오.
●화장은 수트는 부적합합니다. 검정, 내이비 혹은 화색등으로 수트나 구두 색상과 맞춥니다.
●화시계는 가능한한 흰색상으로 하여 깔끔한 인상을 주도록 하고, 시계나 안경은 나무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메리노 울 신사복은 신입사원에겐 더없는 파트너입니다.
올해부터 신입사원에게 더욱 잘 어울리는 이유는 신입사원의 신선하고 신랄한 인상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울은 단번신사복이 쉬운 신입사원에게 항상 새우같은 기분은 느끼게 해줍니다. 저력에 구겨진 수트를 목욕후에 갈아서두고 수증기를 찾아두면 밟게 습기를 빨아들인 수트가이처럼 다시 새우처럼 밀끔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활동적인 비즈니스웨어— 맨스타 「크리에이션」을 권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하는 여러분이 부담없이 입을 수 있고, 신입사원다운 신선함과 활동성이 돋보이는 신사복, 세세를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의 정열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나하나에 맛과 실용성을 조화시킨 신사복, 맨스타 「크리에이션」은 바로 그런 옷입니다.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맨스타의 오랜 경험으로 탄생시킨 「크리에이션」— 여러분에게 잘 어울리는, 여러분의 신사복입니다.



80년대 文學운동을 점검한다 ①

◇...각종의 연속적이었던 80년대의 기억속에서도 문학운동은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민족민주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80년대가 마감되려는 시점에서 문학부에서는 각 장르별로 특히 부각되었던 쟁점을 중심으로 문학운동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한다. <편집자 주>

80년대, 그것은 「광주」라는 지명으로 상징되는, 쓰러져 가는 그 무덤과 새로이 일어나는 그 무덤이 서로 교차되는 길림길에서 시작되었다. 아울러 그

것은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탁월한 당대성의 혁명적 반성으로 이어진 시작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것의 성과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시점은 철저한 노동자계급적 입장에서 노동자계급의 생활과 의식 전반에 걸친 다양한 측면을 형성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의 묘사가 수에일관하게 「노동해방」이라는 지향점으로 향해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당대의 역사적 발전정도에 제한받기는 하지만 「문학」 노동자계급 당파성을 구현하고 있다. 셋째로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계급」은

◇글 쓰는 차례

1. 시-민중적 삶의 실체화
2. 소설-주체적 역사인식의 확산 (서경석·서울대강사)
3. 평론-민중문학논쟁의 발전 확대 (최철권·문학평론가)
4. 문예운동-사회변혁 역량의 조직성 (임규관·노동해방문학평론위원)
5. 90년대 문학운동의 전망-민중문학의 지평확대를 위하여 (임수근·문학평론가)

이다. 민중적 공동체인 반체제적 반항성에 대한 형성화도 지금도 노동자계급당파성의 구현이라는 범주안에 자연스러운 민중연대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조선사람들」, 통일투쟁 「붉은스카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죽장을 들고」 같은 시는 농민현실에 대한 처밀

달하나 노조집회를 보고



趙義衍
(문과대학교 수석홍익위원)



김정근 교무처장 피진 및 동업자들을 위한 노조집회에는 지난 10월 26일 동국대학교 직원노조 집행부였다.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대학공공체 건설이라는 시각에서 동국가족의 일원으로 서 근무에 있는 직원노조 활동에 건설적 입장을 말하고자 함이 이 글의 목적이다.

노조조합들이 당시 교무처장의 문제시되고있는 발언이 학교집회라는 집단이 가진 역할에 대한 것이 구성원 개인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할때, 직원노조 총회에서 그 문제 발언을 놓고 「교무처장적 시비 73표, 교수적 박탈 60표...」로 일 개인에게 그러한 집단적 의사 표현을 한것이 적절한 대응인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노조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시켜주는 이익단체임은 분명하지만,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려는 이 시점에서 직원노조는 조합원들과 각 건설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대중적 자세에서 대처해나간다고 본다. 학내에 알려지지만, 김정근 전 교무처장은 이전의 보직교수와는 달리 학교행정에 원칙을 가지고 밀집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수이었던 것으로 지나친 이야기로 되겠지만, 이러한 전 교무처장의 모습이 그동안 일반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사무직 직원들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피해에 대한 권익옹호 투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노조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시켜주는 이익단체임은 분명하지만, 대학이 새롭게 태어나려는 이 시점에서 직원노조는 조합원들과 각 건설으로 관련된 사안들을 대중적 자세에서 대처해나간다고 본다. 학내에 알려지지만, 김정근 전 교무처장은 이전의 보직교수와는 달리 학교행정에 원칙을 가지고 밀집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교수이었던 것으로 지나친 이야기로 되겠지만, 이러한 전 교무처장의 모습이 그동안 일반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사무직 직원들의 노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피해에 대한 권익옹호 투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

혁명적 서정성 형상화한 역사의 나침반

시작은 이제 우리사회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역사의 나침반이었고 민중의 도량이었다. 또 그런 의미에서 80년 「광주 민중투쟁기」는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없었지만 역사적으로 상충하는 계급의 승리적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더

의 혁명적 서정성과 전투적 서정성을 공히 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지면이지만 이 글에서는 80년대의 표면과 특수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위의 몇시인들의 시를 살펴보고서 소략한 평가를 해볼까한다.

한 전력이 낳은 하나의 전형인데 그것의 최대치는 다른 계급 범주에서도 분명한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한편의 초기에서 나타난 근작사에서는 그 소재와 주제의식이 우리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어 자본주의가 낳는 계급모순의 모든 현상을 예의 노동자계급당파성의 관점에서 그것의 본질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고 있다. 이것은 아마 그 정치적 행로와 변화 즉 진위활동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적 과정 예컨대 총체적인 현실인식을 가능케 하는 치밀한 변혁이론과 강령같은

시적 응대함, 원심분리되지 않는 과 노동자계급적 관점의 창작 지향해야...

는 본래의 「해방전사」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80년대의 시를 지나면서 고운을 배 능을 수 없다. 한마디로 그의 시적 생산력은 놀라움 그지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놀라운 생산력이 절제되고 동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아쉬운 면이 아닐 수 없는데 80년대 들어 그의 첫 시집인 「조국의 밤」과 이후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쏟아내는 시들은 많은 차이를 드러낸다. 전자가 70년대

의 현실구도를 생명력 드러내 실적 감응력을 탁월히 구사하는 시적 응대함, 원심분리되지 않는 과 노동자계급적 관점의 창작 지향해야...

간 강파를 「해방전사」에서 현실 감응력을 탁월히 구사하는 시적 응대함, 원심분리되지 않는 과 노동자계급적 관점의 창작 지향해야...



이동식 (문학평론가)

「노동의 새벽」...주체적 현장성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객관적 현실의 탁월한 현실주의적 반영으로 문학운동에 일대 파장 일으켜

들은 노동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깊이 뿌리박고 그 현실의 나날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놀랄만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요소들이 새롭게 건설되어야 할 새세계를 향한 주체적 열의와 투쟁으로 녹아들어가 그 주체의 의식각성을 일깨우는 노동해방의 정서와 결단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백무산은 박노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한단계 최고수준의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을 구현한 시인으로 손꼽히는 데 주목할 수 있다. 박노해의 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시 역시 노동현실의 현상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지극히 노동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 인식의 차원으로 더욱 심화되어있다.

박노해·백무산 주축돼 전투적 서사성 담보 주체인식된 민중 정서 역사적 쓰임새로 확산돼야

김남주는 비록 지적인 계층이었지만 그의 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계급적 당파성과 높은 현실인식의 시적 전환은 또 하나의 전범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의 정예한 민중적 의식과 혁명에 대한 순결한 정신은 당대

80년대의 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기는 파장이었다. 단 이 때 다가오는 90년대의 시는 그것의 역사적 쓰임새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객관적 과정에 더욱 철저히 부응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문화대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기 공연이 오는 10, 11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각각 1회, 2회 공연된다. (문의는 511-2852)

「증언」공연 부천에 기록관을 만들자는 연극인과 연극 애호가들이 뜻을 모아 극단태만을 창단하고 그 첫 무대로 앤드나, 앙스트로프, 안철주, 김중조, 김부미, 김부미 등의 「증언」을 오는 11월 12일까지 하오 5시 7시 30분 부천예술공장에서 공연을 갖는다.

우수영화시사회 한국영화 70주년 기념 걸작 邦外 21편을 현대아트홀에서 30일, 11월 5일까지 우수의 국영화 초청 시사회를 갖는다. 이번 감상회는 「마부」(61년), 「제비」(86년) 등 한 시대를 대표했던 우수 한국영화와 칸-베니스-모스크바영화제 등에서 수상한 외국영화들이 모여있다.

「취침」공연 우리극단마당은 아가사, 크리스티라, 방영희, 김태연 등의 「취침」을 11월 3일~30일까지 매일 하오 5시 7시 30분 토요일 4시 6시 30분 마당 세일극장에서 공연한다.

동약장

기사판

리코...그림展을 오는 4일까지 일주일간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 갖는다.

백상콘서트

본교 응원단 백상콘서트는 「제4회 Live Concert White Elephant」를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하오 4시 4시 45분, 한석규가 우정을 연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과학사전

자연과학연구회에서는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천혜원자력 과학분야에 관한 「과학사전」을 중앙도서관 1층 특별전시장에서 개최한다.

태극도교습

그리야미 그림들 한양대학교 그림동아리 「그리야미」가 오는 3일까지 현대학생회관 3층 여학생회관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문인필적 전시회

건국대학교에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예평회 주최로 제 5회 문인필적 전시회를 갖는다.

서울대 연주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창설 30주년 기념 동문연주회」가 오는 2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서울대 국악과는 1959년 4월 창설된 이래 30여년동안 6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번 연주회에서는 김용익, 박희, 김희, 김희, 김희의 노래가 특별연주되며, 그의 거문고 독주, 가야금연주 등을 비롯해 관아 관련 가곡연주 등이 마련된다.

동문소식

황석영씨 「만해문학상」 수상 소설가인 황석영씨(동문·70년 철학과 중퇴)가 소설 「무기」의 출간을 축하하며 평서에서 제정한 만해문학상을 수상했다.

동약기자석

민중총장 선거에 교수회만 철성석 최근 총장선거논의를 위한 3차 연석회의에서 격원을 비호하는 교무처장의 발언이 지난 10월 4일자 동대신문에 보도되면서 사 교직원노조협의회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일관성 없는 총장선거를 앞두고 교수회의 진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당국의 정책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전이해나기 위한 자율적으로 민주적 총장선거를 갈망하여 왔다.

동문소식

김남주는 비록 지적인 계층이었지만 그의 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계급적 당파성과 높은 현실인식의 시적 전환은 또 하나의 전범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의 정예한 민중적 의식과 혁명에 대한 순결한 정신은 당대

동약기자석은 열린 공간입니다

동약기자석은 전통적인 공동체의 생활속에서 공감을 바를 독자여러분이 직접 기자가 되어 전할하는 공간입니다.

민중적 생활하는 도서의 문헌, 국내외 저서, 주체간의 마찰, 의견대립 등을 건의 또는 제언으로 2단 동약인에게 돌려 주십시오. (월간지 2~3개월간)

*기타 문의는 동대신문사 문화부 하시기바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稿酬을 드립니다.

동약에 발 담고 있는 학생이 어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자동판매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판매기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없는 학생도 드물 것이다. 그만큼 관리가 소홀하고 기계 자체도 오래된 것이

다. 비록 「손실금 반환 청구서」를 달아 놓긴 했지만 쪼잔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보면 그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여 학생이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다.

이 밖에 도 명진 내의 화장실 청결문제, 외국어 사무실 내의 음용수 시설, 자료충족문제, 도서관의 장서 확대문제, 과학관 뒤 공터의 신축토목문제, 학원관 강의실의 의자 개량문제 등 당장 급한 학생복지시설의 완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좋은 학업환경을 갖추어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평민한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남궁은
(문과대 영문과)

각주체 독자사업 활성화 시급

「재단혁신」, 「민주총장선출」 과제 "결론은 하나, 재단혁신연합회의 통한 장기적 재정 구조 마련을"

「8·31 임시부정사태」발생이후 오늘(1일)로 6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전제교수회 대의원과 학생회 간담회를 통해 총장선출안을 조정중이며 공대위의 재단혁신연합회의 구성제안을 통해 재단혁신 투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대중적 투쟁 촉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공대위는 먼저 자치단체간협의체 연대모임으로 상호이견 조정과 재단혁신, 민주적 총장선출제도안 마련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해 지난 18일 재단혁신방안으로 △현이사진 퇴진 △정경삼의 이사장 추대등을 제안한 바 있다.

공대위가 제안한 「재단혁신연합회의」에서 나타나듯 재단정관개칭, 이사장개칭의 원칙, 장기적인 학교재정구조 마련 등의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총장선출」과 결부되는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단대학술제와 단대장선거등으로 한층 이완되었던 학생회체계를 어떻게 공대위가 제안한 재단혁신투쟁과 민주적 총장선출 제도개혁투쟁으로 대중적 촉발을 이끄는지가 공대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대주체 총학생회와 대중성·지도력 회복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 단대장선거를 대중적 인식공유와 투쟁의 장으로 견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공대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자체체계의 정비에 허부단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사안이 상층부만의 논의로 처리되었는지, 잇달 회의의 연기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등도 공대위내 자

체적 비판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대위의 활동방향은 교수회와 합한 여론수렴위원회와 내용수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나느냐의 한계 극복과 25%의 교수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같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대중적으로 추동시키는 것, 「재단혁신연합회의」의 구성을 통한 재단의 총장선출비토권을 막아내는 것 등 산적인 문제들을 대중적 공유와 대중적 투쟁으로 이끄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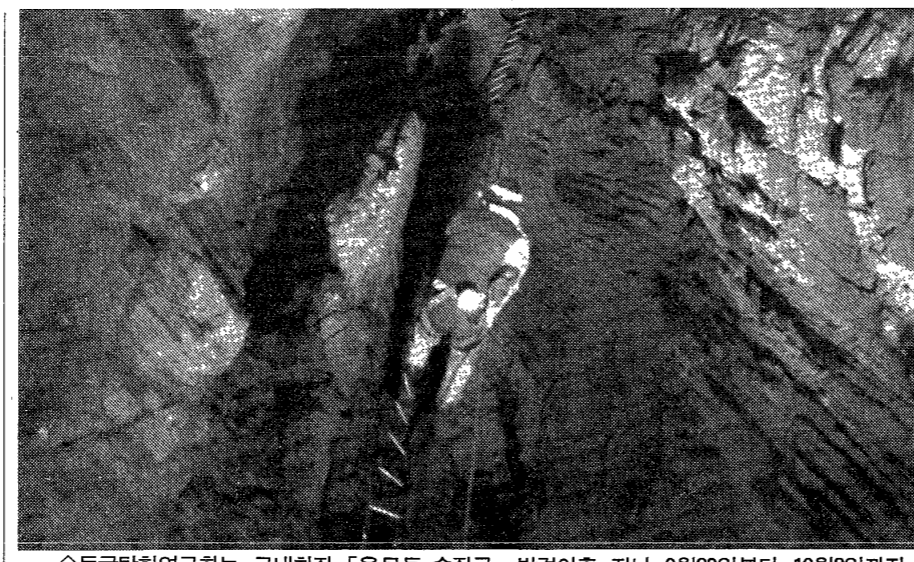
「파소악법철폐」결의

「민중운동단일 분쇄와 파소악법기구철폐를 위한 경주·포항지역 청년·학생 실천결의대회」가 경주캠퍼스 학부연전준위(위원장=이종원·국문4)주최로 지난 26일 오후 1시 학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녹아원에서 열렸다.

1부에는 민문연 노래패의 민중가요강습, 「솔레지언의 적조종」이란 하이네의 시를 조영미(생물2)양이 낭독했다.

2부에는 학부연전준위 위원단의 인사에 이어 후원위원이 민중운동투쟁 결의문 낭독에서 「현시기 민권투쟁의 당면과제는 파소의 존재로대인 반민주, 반민중, 반통일적인 악법을 철파하고 폭압기구의 해체투쟁으로 나가자」고 밝혔다.

3부에는 총학연대사업국장 권용수(철학3)의 사발시를 갖고 「반대반독점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고 말했다고 반민주악법-폭압기구화폐식을 갖고 대화를 마쳤다.



〈동글탐험연구회는 국내최장 유문동 수직굴, 발견이후 지난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추계정기탐사」를 실시했다.〉

학교, 金正根교수 놓고 "골치" 직원노조 3일간 단식후 병가원 제출 고려하기도

직원노조(위원장=李建培)의 강한 반발로 보직에서 해임된 金正根교수가 지난 27일 李智冠총장이 결정한 정보산업대학원장에 임명돼 물의를 빚자 학교당국은 교무위원회(구 학부총회)를 지난 30일 오전 10시에 열어 金正根교수의 발령을 무효화 하기로 했다.

金正根교수의 발령 관련, 본판(2층 교수세미나실)을 점거, 단식농성을 벌였던 직원노조는 「교수들의 보직해임을 약속해 놓고 다시 정보산업대학원장의 보직에 임명한 것은 분명한 약속위반, 이라며 金正根교수의 보직발령철폐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직원노조는 본판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단식농성후 「교무처장 퇴진 및 동국발전을 위한 직원노조 진전대회」를 지난 26일 오후 3시 직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판 앞에서 열었다.

이날 金正根 노조부위원장인 민중총장 선출과 재단혁신에 관한 보고를 통해 △부능한 현이사진은 전일교체해야 할 것 △사기총장은 행정의 수반으로써 행정의 전문화·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사기총장은 학내모든의 권 수를 거머쥔 추대의 권력속에 선출돼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총학 11월 선거안’ 백지화

대총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로 무산... 획책 개정 못해

총대의원회 「임시총회」가 학생회개혁안을 안전으로 지난 27일 오후 4시 동국관(M501)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학학기사업보고와 총학2학기 사업계획·예산안승인, 감사결과보고·회계개정안 찬반 의견등을 가결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69명에 크게 미달하는 대의원 35명만이 참석, 서면으로 개정회칙발의안과 구회칙을 전담한 채 무산되고말았다. 이로써 제22대총학생회장선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한편 오는 15일 개최되는 정

기총회에서는 차기 대의원회 정·부의장선거와 3/4분기 감사보고를 안전으로 열리는데 현재 대총에서는 지난 26일 의장

선거를 위한 세척 마련과 지난 30일의 선거일정 공고 후, 오는 15·16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교원 16명 승진 발령

학교당국은 지난 10월 1일자로 교원승진발령을 실시했다. 이번 발령은 任敦敏(사학)교수를 비롯 총 16명의 조교수급 이상교원이 해당되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任敦敏(사학) - 任正교수 △黃錫吳(철학) - △金泰弘(무

역학) - △李相植(일학) - △嚴基賢(전자계산학) - △趙泳煥(체육교육) - △方賢秀(수학) - 任부교수 △盧徹(물리학) - △廷基榮(법학) -

◇경주캠퍼스
△李壬壽(국문학) - 任부교수 △張義順(철학) - △陳大鶴(수학교육) - △李漢九(철학) - 任正교수 △孫連仁(미술학) - △李太旻(전자계산학) - △鄭美實(기독교교육) -

동글탐험부 유문동 수직굴 탐사

산호·종유석 태고생물 확인

본교 동글탐험연구회(회장=유일환·인철3)는 지난 7월 19일 국내최장 「유문동 수직굴」 발견이후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계정기탐사」를 실시했다.

동글내부를 심층 조사했다. 李海源(농생물학)교수의 지도로 연구회원 18명이 참가한 이번 탐사결과, 강간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에 위치한 유문

경주 11월 선거

설립이후 첫 실시

6월선거에서 11월선거로 전환후 처음 실시되는 경주캠퍼스 제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제6대대학원, 인문대, 법정대 등 2개 단과대 선거가 오는 28,29일 양일간 실시된다.

11월 선거는 지난 25일 오후 5시 정거동성정인 총장실에서 이종원(국문4)총학생회장, 김진원(고미사3)총대의원회 의장 등 20여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었다. 이때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은 선거 20일 전인 8.9일까지이며, 유세는 총학·여학생회는 3차례, 단과대는 2차례의 갖기로 결정했다.

기타 세부사항 및 선거세칙은 소위원회(총학인, 각단대 1인씩)를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자연인의 밤

자연대학생회(회장=강동원·전신3)주최, 「강의동행취를 위한 자연인의 밤」이 축구, 배구 등의 체육행사로 오는 2일 오후 12시 부터 문무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각 학과를 민주팀과 통일팀으로 나눠서 닭싸움, 여자축구, 남자배구, 차전놀이 등을 벌이고 과별 한림의출연하여 장기자랑과 노래자랑 등의 행사와 함께 종합강의동행취 설명회도 갖는다.

대학원 학생회장 선거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동국관서 실시

「제6대 대학원 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교수회관, 학생회관, 동국관앞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의 임우보자 등록마감은 오는 7일까지이며, 선거유세는 오는 13, 14일 양일간 동국관앞에서 실시된다.

경주 「초청대법회」 명진, 법성스님 초청

동국의 총총과 불교혁신을 위한 「초청대법회」가 지난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사흘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지난 31일 오후 2시 명진스님이 초청강사로 나와 녹아원에서는 「선의 본질과 인간사상」에 관해 강연을 했으며 둘째날인 오늘(1일)은 법성스님을 초청, 「주체적 실천으로서의 불교철학」을 주제로 오후 3시 원호관 소강당에서 법회를 갖고, 마지막날인 오는 2일에는

대법원 학생회장 선거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동국관서 실시

「제6대 대학원 학생회장 선거」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교수회관, 학생회관, 동국관앞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의 임우보자 등록마감은 오는 7일까지이며, 선거유세는 오는 13, 14일 양일간 동국관앞에서 실시된다.

경주 「초청대법회」 명진, 법성스님 초청

동국의 총총과 불교혁신을 위한 「초청대법회」가 지난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사흘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주최로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지난 31일 오후 2시 명진스님이 초청강사로 나와 녹아원에서는 「선의 본질과 인간사상」에 관해 강연을 했으며 둘째날인 오늘(1일)은 법성스님을 초청, 「주체적 실천으로서의 불교철학」을 주제로 오후 3시 원호관 소강당에서 법회를 갖고, 마지막날인 오는 2일에는

총장 직접지시 없었다

부정입학 관련 2차공판 진술

부정입학관련·특경가법(형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준호(국문4)는 지난 5일 법원 1회 재판에서 「부정입학 관련 2차공판」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에서 열렸다.

홍석계 부장판사의 피고인 진술에 이어 행해진 피고인 진술에서 「부정입학의 경위·배후를 진술하라」는 이명재 검사의 질의에 李智冠前교무처장은 「부정입학자 45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종원전대계산소장에 인계, 컴퓨터조작을 했으며 총장의 직접적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 입시자료의 보존상태에

김사지연

○「김사는 누구나 싫어한다」라는 말을 입술이나 하듯이 김사지연이 훨씬 지나도록 김사가 마쳐지지 않았다.

경주 총대의원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 김사지연에 대한 감사기회를 다스려 김사가 치러졌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총학생회에서 오히려 영수증발령의 정

인 것같이 흐뭇한 인상을 주기도.

물물물

○「김사지연」이란 이름이 요즈음 정부가 하는 일은 점점더 진행되지만 하나 그 저 대책이 서지 않을 뿐.

일마친 시위진압장비로 대당 4억이 넘는

「물대포」의 「물정치」를 구경한 스과 7군대, 「최신 장비의 물대포시위로 민주화 시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일지!」

도르=계사판

○「동연제와 각 단대학술문화제가 활발한 가운데 「도르=계사판(?)」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생겼다고.

사연인즉 학우들이 홍보용 팸플릿을 도르에 딱지딱지 붙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

「물대포」구입하며 「물정치」 공작하는 「물대포」...

산상 문제등으로 감사기간을 일주일 연기하게 되었다고. 이에 모학우는 이제까지 표명에는 「열린 총학생회」에 걸맞은 학생회운영이 이루어졌음을 뜻했어 보여주어야 한다고 -

수 있는 중강당에 비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는 너무 미비. 변호인·김사지연은 긴장됐던 지 마이크를 잡을때마다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으나 증인선정 등 분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

가각의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물대포」가 들어와 앞으로 시위중 췌부액을 그야말로 비오듯 퍼붓는, 확실한(?) 시위진압을 하려는듯 한데... 시위진압용 「물대포」 구입을 위해 돈을 불쌍트 뿌리는

푸리게 하는 것으로... 학우들의 무질서한 홍보물 부착도 문제지만, 그 근본적 문제는 학내 계사판의 절대 부추기이라는 지적이 속속

이준호 세계新

본교 교육대학원의 이준호교원이 「제6회 전국남녀 인도어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대회」 남자일반부 1천5백m부문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지난 27일 태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이준호교원은 2분24초40으로 질주, 김기훈(단국대)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종전 한국최고기록(2분24초84)을 0.44초 앞당겼다.

금강관식당영업재개 영업중단 두달 만에

본교 체육부 선수식당인 금강관이 지난 9월 2일 영업을 중단한지 두달만인 오늘(1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TriGem 삼보컴퓨터의 역사가 한국 컴퓨터산업의 역사입니다.

거의 다 큰 회사, 앞으로 계속 클 회사 — 당신은 어느 쪽?

모두가 안된다고 생각한 순간 삼보는 시작합니다. 9년전 첫 국산 PC를 만든 것, 우리 컴퓨터가 세계에 처음 진출한 것, 년평균 100%의 성장을 거듭한 것 모두, 끝없는 도전 속에 이룩한 일들입니다.

이제 눈앞에는 2000년대 — 삼보의 목표는 세계속의 컴퓨터 거인입니다. 함께 가십시오. 한국 컴퓨터산업의 긍지, 그 자랑스런 얼굴을...

50%의 불가능 앞에서 50%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그런 젊음과 만나고 싶습니다.

정보통신의 선두주자
삼보컴퓨터
대표전화 : 390-2114, 313-0030

